

# 휴살림 200호, 유기농을 키워라

## ‘한반도 전체 유기농업화’ 위한 열린 공간 변신

‘판을 바꾼다’  
휴살림 신문이 200호를 맞았다. 지난 1992년 6월 11일 책자 형태의 지령 1호 <휴과 미생물>을 발간한 이후 21년 9개월만이다. 휴살림 신문은 제200호를 맞아 판을 바꾼다. 지금까지의 대판이 아닌 보기 편하고 휴대하기 쉬운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구독자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휴살림 신문이 판을 바꾼 이유는 생산자 중심의 유기농업 정보에서 벗어나 소비자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과 유기농업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다. 휴살림 신문은 휴살림 23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았다. 1996년 충북유기농업연구소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2001년 휴살림 순환농법 특허 취득, 2002년 민간인증기관 지정, 2004년 쿠바식 유기농업 실험농장 개장, 2005년 휴살림 CI 전포식,

2006년 유기농 1호 미생물 농약 등록, 2007년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2008년 한국농촌대상 연구개발부문 수상, 2009년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휴살림 캠퍼스 개강, 2010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2011년 토종연구소 개소, 2012년 광화문 광장 토종벼농사, 2013년 서울 학고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등 휴살림의 굵직한 이야기들이 모두 신문에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신문을 통해 휴살림 캠페인 운동에도 앞장섰다. ‘도시에서 휴살림 운동’, 유기농업의 즐거움 혁명 ‘휴살림 꾸러미 확대’, ‘토종, 오천년의 희망을 싹 틔우다’ 등등 유기농업의 확대를 위해 애써왔다. 올봄 캠페인 또한 판을 바꾼다.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라는 원대한 꿈을 꾀다.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업 비율은 1% 정도다. 1% 현실에서 100%를 꿈꾸는 것은 헛



휴살림 신문이 200호를 맞았다.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된 망상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20여 년전 유기농 또한 그랬다. 잠포대 같은 소리라는 비판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와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유기농업이 휴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길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

게 된 것이다. 이제 1%를 밀거름 삼아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를 꽃 피우고자 한다. 휴살림 신문은 이 꽃을 피우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농민과 도시민 모두 휴살림 신문이라는 밭에 한데 모여 토

론이라는 쟁기질과 실천이라는 낫질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로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휴살림 신문을 통해 유기농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판을 신명나게 바꿔보자.

## 2014년 (사)휴살림연구소 정기 대의원 총회

###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등 올해 활동 계획 발표

2014년 (사)휴살림연구소 대의원 총회가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휴살림 대우리 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회 회의 안건은 2013년 감사보고 및 승인, 활동 및 결산 승인, 2014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이었으며, 이후 기타토의로 진행이 되었다. 총회 의장으로 이태근 (사)휴살림연구소 회장, 서기로 서성내,

의사록 서명인으로 윤성희 토종연구소장, 이도훈 괴산감물지부 회장이 지명되었으며, 석중욱 감사가 2014년 감사보고를 하였다. 총회 참석자 중 최양부 고문은 “휴살림은 23년간 국내 유기농업을 위해 앞장서고 발전시켜왔다. 유기농업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농민의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인사말을 남겼다. 2013년 주요 활동으로 휴살림 교육 활성화, 학교급식 추진, 도시농업의 다양한 활동, 토종연구 사업

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고하였다. 2014년 주요 활동 계획으로 휴살림 유기농 생태마을과 ‘휴살림 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2015년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와 충북 유기농 특화도에 맞는 유기농 생산 단지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유기농업 모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휴살림 상’은 휴살림의 철학과 정신을 갖고서 유기농업 최고 기술을 보유한 농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올 6월 11일 휴살림 창립 기념일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



휴살림 대우리 사무소 회의실에서 2014년 (사)휴살림연구소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p><b>2014년 농협계통 유기질비료</b></p> <p>양분과피가 적은 저온 성형. 냄새가 다릅니다. 토양살포 후, 발효가 빠르고 분해가 잘됩니다.</p> <p><b>휴나라 유박골드</b> 친환경 혼합유박-펠렛(20kg) 4.3-1.7-1 +유기물 70% 이상</p> <p>친환경 유기농차에 등록 공시품</p>	<p><b>농협계통 유기농업용 발효퇴비</b></p> <p>풍부한 발효미생물과 천연양분을 함유하고, 염류집적없이 비효가 빠릅니다. 휴을 살리는 친환경 종합토양관리제.</p> <p><b>휴나라 균배양체</b> 1등급 부숙퇴비(20kg) +유기물 40% 이상</p> <p>친환경 유기농차에 등록 공시품</p>	<p><b>발효 부숙 축진용 미생물자재</b></p> <p>세균, 방선균, 곰팡이, 효모류 등 발효 및 길항미생물이 다량 함유된 부숙 축진제. 피비 발효를 촉진하고, 유용미생물을 공급합니다.</p> <p><b>휴살림 골드</b> 퇴비발효 부숙축진 미생물 비료 사용량 ·퇴비발효시 퇴비 2톤당 1포 ·밀거름시 150평당 1포 살포 후 로터리</p> <p>친환경 유기농차에 등록 공시품</p>	<p><b>밀거름용 천연황산가리</b></p> <p>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원에 과수 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근재류의 뿌리를 크게 합니다.</p> <p><b>천연황산가리</b> 토양살포용-입성(10kg) ·수용성 가리 45% 이상 황 17% 이상 평균 300평에 1~2포 사용</p> <p>친환경 유기농차에 등록 공시품</p>
--	--	---	--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휴살림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주)휴살림

# 1992년 6월 '흙살림' 제1호 발행

## 흙살림 신문 무엇을 담아왔나

1992년 6월 흙살림 신문이 발행된 이후 어떤 내용들을 담아왔는지 정리해봅니다. 흙살림 신문의 역사는 다음없는 흙살림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편집자주

- 1991. 6. 11 괴산미생물연구회 발족, (재)충북농촌개발회, 괴산소비자협동조합, 농민들이 참여.
- 1992. 6. 11 책자형태 <흙살림> 제1호 <흙과 미생물> 발행(충북농촌개발회)
- 1993. 6. 11 흙살림 연구모임 창립.
- 1993. 8. 15 <흙살림> 제3호 발행-생명도, 잎살림, 광합성군(빛모음) 개발
- 1994. 6. <흙살림> 제6호 발행, 연구위원회 발족(위원장 서현창), 퇴비부숙제의 제조방법 특허출원, 회원200명 돌파, 한살림생산자가 중심의 흙살림시범포 설치.
- 1994. 9. 유기농실천대회, 평생회원 가입 시작, 흙살림생활농장(음성) 운영
- 1995. 5. <흙살림> 제9호 발행-음식물쓰레기처리방안(퇴비화) 게재.
- 1995. 6. <흙살림> 제10호 발행-흙살림연구소 신축이전 준공잔치, 회원대회, 회원800명 돌파, 현장농민연구원 위촉.
- 1996. 3. <흙살림> 제12호 발행-충북유기농업연구소 지정.
- 1997. 1. 27 사단법인 흙살림 연구소 현판식.
- 1997. 4. <흙살림> 제16호 발행-흙살림 로고제(이철수 화백 글씨) 사용, 흙살림 제기술강좌 시작(매월), 이철수 화백 목판화 기증.
- 1997. 6. 11 흙살림 회원대회, 회원1,200명 돌파, 환경부장관상 수상.
- 1997. 10. <흙살림> 제19호 발행-흙살림미생물 배양기 자체 개발, 토양미생물을 활용한 퇴비 부숙제의 제조방법 특허등록.
- 1998. 1. <흙살림> 제20호 발

- 행-97년 한해동안 2,795명 방문 교육, 흙살림순환농법 실용화 연구 수행.
- 1998. 6. <흙살림> 제21호 발행, 신문 대판으로 발행-회원 2,000명 돌파, 충북대 협력농장 지정.
- 1998. 8. <흙살림> 제22호 발행-김성훈 농림부장관 방문, 서울 송파구 프라자아파트 670세대 순환농법 실천.
- 1998. 11. 흙살림 출판 등록, 정기간행물 등록, <흙살림 순환농법>, <환경농업의 이론과 실제> 발행, <흙살림> 제23호 발행,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
- 1998. 12. <흙살림> 제24호 발행-흙살림순환농법 강좌 결산(1,500명에게 교육), 충북 관광코스로 흙살림 선정, 실직 여성 가장 겨울나기 쌀 공급, 98년 한해 6,283명 교육.
- 1999. 9. <흙살림> 제32호 발행-순환농법 체험교실(괴산명덕초 65명 대상), 흙살림 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에 파견.
- 1999. 10. <흙살림> 제33호 발행-흙살림 우렁이쌀 판매잔치, 연구소 뒤편 750평 벼 수확.
- 2000. 1. <흙살림> 제36호 발행-2000년 활동계획(조직 내실화, 교육장 신축, 기술현장 적용 확대), 균배양체 제조 및 활용 공개, 흙살림 홈페이지 개설.
- 2000. 6. <흙살림> 제41호 발행-대덕연구단지 내 흙살림기술훈연구소 입주, 회원 2,300명 돌파, 회원 확대운동.
- 2000. 8. <흙살림> 제42호 발행-흙살림 바이오시대 열다, 사단법인과 주식회사 분리.
- 2000. 10. <흙살림> 제44호 발행-교육장 준공 및 흙살림대회, 준공기념 토론회(코덱스 허용자재와 우리의 대응), 흙살림 자



흙살림 신문 지령 1호를 비롯해 초창기에는 책자형태를 띠고 있었다.

- 1997년 흙살림 미생물 배양기 자체 개발
- 2001년 흙살림 순환농법 특허 취득
- 2002년 IFOAM(국제유기농운동연맹) 가입

- 연석 제막식(이철수 화백 글씨).
- 2000. 12. <흙살림> 제45호 발행-농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음식물재활용 연구성과, 충북 발명왕 특별상 수상, <친환경농업의 이론과 실제> 우수환경도서상 수상.
- 2001. 1. <흙살림> 제46호 발행-흙살림 순환농법 특허 취득, 흙살림이 제안하는 토양관리, 미생물농약 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 지정(진홍정).
- 2001. 9. <흙살림> 제53호 발행-흙살림 일꾼의 다짐(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을 살린다 등) 처음 사용, 현장농민연구원 모집 안내.
- 2002. 1. <흙살림> 제55호 발행-민간인증기관 지정, 인증생산기준, 인증표시 안내, 병력특례업체 지정, 배양기 배양실 설

- 치 완료, 제주감귤-괴산 무농약 쌀 물물교환 개제.
- 2002. 3. <흙살림> 제57호 발행-신문 대판으로 변경, 모범농가 시리즈 연재, 지역조직 잇달아 결성(대구, 장수, 안성, 해남).
- 2002. 9. <흙살림> 제62호 발행-회원 5,000명 돌파, 월평균 110명 가입, 지역흙살림 창립 열기(옥천, 청원, 남원), 인증농가수 작년의 1.8배, 출하량 2배 증가로 친환경농산물 시대 열어.
- 2002. 10. <흙살림> 제63호 발행-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공식 가입, 현장인증지도사 연수회, 우리쌀지킴이100인100일 걷기행렬 흙살림 방문.
- 2003. 1. <흙살림> 제65호 발행-생산일지 출간, 원산지표시 확인하자 캠페인 시작, 2003년

- 인증지킴 개정, 유기농업총서 발행 시작(흙을 살리는 길).
- 2003. 4. <흙살림> 제69호 발행-흙살림운동 농민, 도시민 함께 한다(유기농쌀 한가마 주문하기, 학교급식운동 등), 수입유기농산물 대응방안 기고.
- 2003. 6. <흙살림> 제71호 발행-격주간 농업전문지 <흙살림정보> 창간, 상반기 인증66농가, 189ha, 흙살림 쇼핑몰 오픈.
- 2003. 7. <흙살림> 제72호 발행-제1회 손모내기 체험행사(괴산 감물), 대안을 찾는 사람들 연재, 창립12주년 기념행사, 무농약 쌀 한가마 신청자 명단 수록.
- 2003. 11. <흙살림> 제76호 발행-제1회 벼베기, 메뚜기잡기 체험행사,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타상 수상.

<3 면에 계속>

**흙살림 도서 할인판매**

미국의 유기농업을 꽃피운 로데일의 역사를 우리나라 유기농업책사 1호인 최병철 박사가 공들여 번역했습니다. 농업의 본질은 생명이며, 그 근원은 흙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흙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흙살림 회원분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Pay Dirt (생명농법 원리) | 농업성전 | 흙과 건강  
각 권 정가 20,000원 - 13,000원 (택배비 포함)

**흙살림연구소 유기농업총서 시리즈 판매중**

흙살림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이 흙살림 유기농업총서에 담겨 있습니다. 유기농업총서를 통해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보세요.

농사짓는 즐거움 | 유기농업이 희망이다 | 참농부  
흙을 살리는 기쁨, 땅 위에 사는 기쁨 | 한병영양학 개론  
유기재배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 이 땅에서 농업을 하는 의미

\*흙살림 회원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구입 및 문의사항**

사무국 도서 담당 043-833-5004

# 홍살림 23년 역사를 담은 그릇

<2면에서 계속>

2003. 12. <홍살림> 제77호 발행-회원 7,500명 돌파, 2003년 한해 2,000명 증가, 한해 교육생 8,000명 돌파, 오창센터 기공식, 친환경농업 10대뉴스, 홍살림 10대뉴스, 도시모니터 회원 모집.

2004. 1. <홍살림> 제78호 발행-신년특집호(12면), 유기농업 대부 김영원 선생 대담, 오창센터 개소식, '유기농업을 전국민 생활과제로' 캠페인 시작.

2004. 3. <홍살림> 제80호 발행-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에 이태근 회장 뽑혀, 홍살림 서울사무소 마련, 유기식품 인증 시작.

2004. 5. <홍살림> 제82호 발행-홍살림 미생물 복한에 지원, 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흙사모) 창립모임.

2004. 7. <홍살림> 제84호 발행-쿠바식 유기농업 실험농장 개장, 오창센터 공인분석기관 지정.

2004. 10 <홍살림> 제87호 발행-홍살림 그린1급 퇴비 생산 등록, 쿠바 라울교수 초청 도시농업 특강.

2004. 11. <홍살림> 제88호 발행-전국귀농운동본부와 도시농업위원회 창립, 제2회 벼베기 캠페인 시작 과담회.

2004. 12. <홍살림> 제89호 발행-홍살림 인증가대회 성황, 1천명 환경농업 결의, '유기농업을 전국민 생활과제로' 캠페인 결산.

2005. 1. <홍살림> 제90호 발행(신년특집호)-2005년 홍살림 사업방향(친환경농업 컨설팅 강화), 원로 농학자 김영진 선생 대담, '전통농업에서 배우자' 캠페인 시작 과담회.

2005. 2. <홍살림> 제91호 발행-황가루병 막는 미생물 살균제 개발, 괴산 박달마을 노인정 찾아 전통농업 구술 취재, 유기가공품 인증 1호(해남녹차) 탄생, 인증길라잡이 교육 시작, 홍살림 친환경농업 컨설팅 기관 지정.



2004년 홍살림 미생물 복한에 지원  
2010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2013년 서울시친환경학교급식 공급

2005. 4. <홍살림> 제93호 발행-오창센터 친환경농자재 판매장 '농부네장터' 설치, 정기교육 100기 돌파, 생태텃밭교실 입학식, 전통농업위원회 공부모임 첫 시작.

2005. 7. <홍살림> 제96호 발행-홍살림 미생물 5.2톤 복한 전달, 미생물배양기 8대 복한 전달, 창립기념 세미나(남북농업교류협력 방안), 유기자재 인증 시작.

2005. 10. <홍살림> 제99호 발행-IFOAM 총회 참석, 한국 유기농업 널리 홍보, 북한 삼일포농장 농자재 전달, 인증지침 개정 확정, 5톤 규모의 미생물 전문배양기 가동 시작.

2005. 11. <홍살림> 제100호 발행, <홍살림> CI(기업이미지 통합화작업) 선포식.

2006. 3. <홍살림> 제104호 발행, 홍살림 유기농업명예연구소 우수 연구소 표창, 홍살림 교육장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홍살림 분석실 GC 분석기기 추가 도입.

2006. 4. <홍살림> 제105호 발행, 유기농 1호 미생물 농약 등록, 홍살림 괴산군지부 창립, 유기농업총서 <농사짓는 즐거움> 발간, 무주군 유기농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위탁교육.

2006. 7. <홍살림> 제108호 발행, 홍살림 인증센터 인증사업계획서 개정안 승인,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과학연구소와 친환경농자재 공동 연구개발 협약식, 이철수 관화전 폐막.

2007. 4. <홍살림> 제117호 발행, 친환경 유기인삼 재배연구 시작, 홍살림 공동체 회원가

입 시작, 홍살림 주말 장터 경매 공원에서 개최

2007. 11. <홍살림> 제 124호 발행,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공식 지정

2008. 4. <홍살림> 제 129호 발행, 토양중금속 정밀분석기 도입, '도움이' 등 상표등록 3건 추가

2008. 5. <홍살림> 제 130호 발행,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 획득

2008. 6. <홍살림> 제 131호 발행, 농촌진흥청 비료시험 연구기관 지정

2008. 9, <홍살림> 제 134호 발행, 홍살림 야생화 시험장 조성.

2008. 12, <홍살림> 제 137호 발행, 홍살림 생협 발기인 총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첫발, 2009. 1. <홍살림> 제 138호

발행, '신기한 홍살림 세쌍' 개발, 제3회 농협문화복지대상 농업발전부문 대상 수상

2009. 5. <홍살림> 제 142호 발행, 충북 농업마이스터 대학 홍살림 캠퍼스 개장

2009. 6. <홍살림> 제 143호 발행, 홍살림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기관 선정, 괴산군과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

2009. 9. <홍살림> 제 146호 발행, 홍살림 친환경농업 귀농·귀촌 교육 1기 개강

2009. 12. <홍살림> 제 149호 발행, 일본유기농업연구회와 업무협약

2010. 2. <홍살림> 제 151호 발행, 도시유기농업리더 입문과정 개강

2010. 4. <홍살림> 제 153호 발행,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진, 도시 홍살림 직거래장터 개장

2010. 8. <홍살림> 제 157호 발행, 괴산군 토종수집단 발매식

2010. 10. <홍살림> 제 159호 발행,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창립

2011. 8. <홍살림> 제 169호 발행, 삼지농부와 함께 유기농가게 '농부로부터' 개장

2012. 5. <홍살림> 제 178호 발행, 노들섬에 토종벼 80여종 분양

2012. 9. <홍살림> 제 182호 발행, 이태근 회장 제 22회 일가상 농업부문 수상

2013. 4. <홍살림> 제 189호 발행, '토종순례단' 운영

2013. 5. <홍살림> 제 190호 발행, 홍살림연구소 장기귀농학교 개강, 서울시청광장에서 토종 미니 박람회 개최

2013. 8. <홍살림> 제 193호 발행,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사업자 선정

2013. 11. <홍살림> 제 196호 발행, 홍살림연구소 현장실습교육장(WPL) 선정, 장기귀농학교 졸업식

2014. 2. <홍살림> 제 199호 발행, 홍살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괴산군유기농업리더양성교육 개강

## 홍살림 동향

### 몽고 유기농업 관계자 방문

지난 2월 17일 몽고 유기농업관계자 오토콘템벨레씨가 홍살림을 방문했다. 그는 충북 괴산에 위치한 홍살림 토종연구소와 농장, 오창에 위치한 홍살림유기농연구소와 푸드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오토콘템벨레씨는 몽고 현지에 유기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와중에 홍살림을 알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찾아

왔다고 한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홍살림 유기농자재 개발과 수출, 홍살림의 농가소비자 조직 시스템, 몽고 현지 컨설팅과 교육 진행이 가능한지를 상의했다. 오토콘템벨레씨는 "홍살림이 수출할 수 있는 유기(토종)종자와 유기질 비료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약관계를 원했다.

오토콘템벨레씨는 몽고 철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 후 현지에서 유기농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몽고에서도 민간 유기농업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홍살림이 갖고 있는 유기농업의 과학화 정보가 몽고의 유기농업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몽고 유기농업관계자(오른쪽 두번째)가 유기농업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홍살림을 방문했다.

# 유기농업 선도 정보지 기대합니다

## 지령 200호 발행 축하메시지

홍살림 홈페이지(www.heuk.or.kr), 페이스북, 이메일을 통해 홍살림 신문 200호 발행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홍살림 신문은 홍살림 회원을 포함해 농민, 도시민, 소비자 모두를 위하여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앙드레 류 IFOAM(국제유기농업 동연맹) 회장** 홍살림의 200회 신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매우 훌륭한 성과이며, 홍살림 신문에 기재된 매우 가치있는 유기농업 자료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석종욱 한국농부작물연구회 회장** 홍살림 신문 지령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살림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밑거름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장과 땅과 생명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리더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주경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살림이 우리나라 유기농업 발전에 큰 기동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최주순Rose랑's** 창간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연리지를 감히 초연드리며 더 높고 밝은 희망의 등대를 기원합니다.

**고현관** 홍살림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정보지가 되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최영수** 창간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학비료에 찌든 우리 농토에 자연농업 무농약, 유기농업, 순환농업을 제시한 홍살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덕천** 23년 유기농을 위한 한길을 걸어 온 홍살림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성여경** 휴한중으로 아무 것도 키울수 없지만 2000년 2000년쯤의 흙이 모이면 땅이 되고 작물이 크고 더불어 생명도 자랍니다. 꾸준히 걸어온 23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함영국** 매일 유기농업의 정보등으로 200호까지 끊임없이 지켜오신 점 경하드립니다. ^^

**정우창** 지난 23년의 홍살림 역사

가 전 한반도 유기농업화라는 비전의 밑거름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향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남은** 홍살림 회원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홍승호** 흙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온 23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지를 보냅니다.

**김혜영** 한 길을 걸어오신 홍살림!!! 축하합니다!



**박제선** 축하합니다!!

**신인환** 우리나라 농업에 친환경 유기농의 생명을 담기위한 지난 23년, 지령 200호를 축하합니다.

**박상운** 우리나라 유기농의 선구자 홍살림의 이태근 회장님!!!

23년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한반도전체의 유기농업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선영숙** 한국유기농업의 큰 형님 홍살림 200호 축하합니다 앞으로 300, 400호까지 쭉우욱~~~~

**오원택** 축하드립니다. 긴 세월 한길을 걸어온 홍살림을

**왕성근** 유기농 힘은 들지만 담은 분명 있습니다 쉽게 배울수있는 비법 한가지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살림 무궁한 발전

을 위하여.....

**김홍태** 축하합니다!

**이우성** 12년전 어리버리 초보농부를 길러준 홍살림을 기억합니다. 100호 홍살림신문 만들 때 한국유기농업 역사가 바로 홍살림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홍살림과 홍살림신문 든든합니다. 언제나 농부들 편에서, 우리나라 농촌 농업을 위해 초심 잃지 말고 300호 400호 1만호까지 행진하시라. 홍살림신문 만만세!

**김철열** 축하드립니다!

**정현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실행해봅니다.

**김상보** 200호 축하드립니다. 흙을 살려야 작물이 살고 흙을 살려야 농민

래가 없습니다. 흙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온 홍살림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을 지켜내고, 먹을거리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원합니다.

**정광환** 어드렛 23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 제가 신문에서 자그만하게만 홍살림연구소 기사를 보고 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후 자청해 교육받았지요. 아마 그날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그날이었지요. 이태근 소장님께 감사인사도 받았지요. 발전을 축하합니다.

**박천창** 축하드립니다. 피산에 견학을 하고 교육을 받고... 2000년

도 였으니 홍살림을 알고 지낸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Gi-Soo Choi** 지령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채수근** 유기농을 위해 홍살림 2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한국 농업발전을 위해 유기농 역할이 중요한 시점으로 창조농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현주** 홍살림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두벽 두벽 홍살림의 길, 앞으로도 응원 할게요. 축하축하드려요~~

**박성준** 200호를 축하드립니다! 홍살림이 지구를 살리는 파수꾼이네요~~~정산 하양에서 논다매~

**최주순** 유기농업의 파수꾼 200호 지령을 축하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멋진 옥답이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최경주** 축하드립니다^^ 유기농업의 성공은 순수하고 건강한 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살림의 무궁한 발전을 기도합니다♥♥

**윤범준** 200호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유기농업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역사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처음 시작 했을때 맘처럼 유기농업을 발전시켜 주시고요 하루 빨리 무농약인증과 저농약 인증을 없애자지 유기농업이 바로 설 것입니다... 올 한해 대박 나세요.... 유기농 농장 운영승입니다.

**박철중** : 사랑하는 우리 홍살림회 이태근 회장님! 한평생 오로지 우리나라 유기농업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삼 존경드리며 저희들도 미력하지만 일선에서 적극 후원 하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중 드림

**최시영**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앞으로도 잘 해가시리라 믿습니다. 홍살림 파이팅!

**남무현** 축하합니다 홍살림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역사고 뿌리네요.

**주은정** 벌써 그렇게 되었군요 일바 전 매주 때문에 방문했더니 엄청나게 규모가 커졌더군요.

**김정호** 축하합니다!!!

**Byungrin Yoo** 홍살림의 지나온 역사를 좋아하고 앞으로 만들어갈 역사를 기대합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정밀하고 신속한 홍살림 안전성분석안내**  
[공인분석기관]

[홍살림부설연구소는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한 **분석비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석항목	*분석비(원)	분석기간(일)
전류농약 (농산물 및 토양)	단성분	1 항목 110,000	3~14
		102 항목 140,000	
	다성분	177 항목 220,000	
		245 항목 280,000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유기물, 중금속, 발아율 등 1개 항목	4,000~40,000	5~14
토양	이화력(사바차방서 포함)	질소 등 0항목	30,000
	중금속	카드뮴 등 유해 8성분	88,000
GMO	콩	150,000	3~10
	옥수수 및 혼합물(옥수수+콩)	200,000	
쌀·현미 품질검사	정성	100,000	3~10
	정량	200,000	
	합살	300,000	
미생물	일반미생물 1종	20,000	7~14
	병원성미생물 1종	30,000	

\*분석비: 당기세 별도

**홍살림 미생물배양 배지중균 공급시작**

**배양문의**  
양명근 박사  
070-4035-4658

**제품구성**

- 홍살림 바실러스 메디움 및 중균
- 홍살림 유산균 메디움 및 중균
- 홍살림 효모 메디움 및 중균
- 홍살림 광합성균 메디움 및 중균
- 홍살림 방선균 메디움 및 중균

**제품 특징 및 효과**

- 20년간 미생물 연구와 개발로 탄생한 전문배지 및 중균 배양 세트
- 미생물 배양에 최적화 된 균일하고 안정된 배지
- 고밀도 배양이 가능한 배지 및 중균 공급
- 다량의 효소와 생리활성물질 분비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홍살림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점처 문의 323-01-063992 (주)홍살림

유기농업 원로에게 듣는다 ③ 정광영 - 흠살림 유기농 인증 1호



한평생 부끄러움 없이 농사를 지어왔다는 정광영 선생님.

# “농사란 정직한 마음이 첫째다”

35년 여간 영농일지 작성 ... 성실한 농부의 표본

“당신의 베이스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다면 베이스캠프는 방향이 될 것이고, 어떻게 가야할지 묻는다면 지도가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한 기업체의 TV CF 카피다. 충남 당진의 정광영(71)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마치 이 카피 문구 같은 베이스캠프를 향한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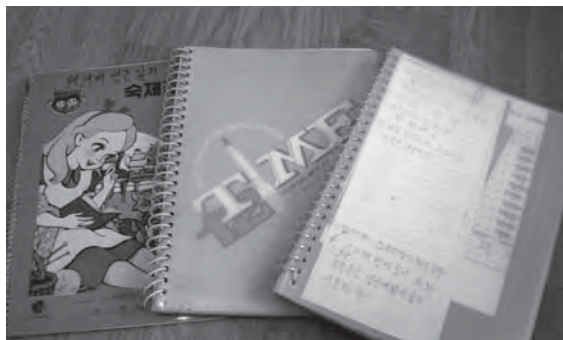
■ 유기농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정광영 선생님께서 전화로 드렸을 때 선생님은 굳이 이곳까지 찾아올 필요가 있겠느냐며 인터뷰를 사양하셨다. 건강도 여의치 않으니 다음 기회에 만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흠살림 신문 200호를 맞아 2002년 1월 최초로 민간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흠살림에서 제1호로 인증을 받으신 선생님을 놓치기가 아쉬웠다. 세 번의 통화 끝에 겨우 승낙을 받고 택으로 찾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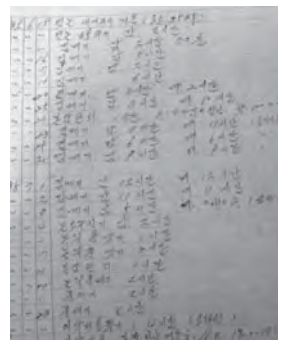
선생님이 계신 매산리 마을은 서해대교가 바라보이는 평온한 시골이었다. 아궁이가 딸린 자그마한 집에 들어서면서 건강부터 여쭙보았다. “유기농이 힘이 들잖아. 여름엔 하루 종일 김매야 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일하다보니 몸에 무리가 왔나봐.” 허리를 비롯해 관절 부위가 좋지 않더라며 올해 농사를 걱정하신다. 몸도 좋지 않은데 유기농을 그만두고 농약·제초제 뿌리며 농사짓는 건 어떻게겠냐는 기자의 농담섞인 질문

에 단호하게 고개를 흔드신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흠과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농민 생산자들의 의무다. 지금껏 힘들게 일해 왔지만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무리 몸이 아프다 해도 유기농을 포기할 순 없다.”

■ 농사는 마음으로 짓는다  
정 선생님은 70년대 가톨릭 농민회의 ‘한마음 한몸 운동’ 교육을 받으시면서 환경에 대한 깨우침을 얻었다. 관행농사를 짓다 교육 첫해 농약을 1/3로 줄이고 수확량이 확 줄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지속했다. 당시 정부에선 친환경농업보다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권장하던 시기였다. 주위의 탄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셨다. 1986년 가톨릭농민회 출신 동지들을 중심으로 무농약,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대한 협의체를 이루자 이듬해부터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바로 흠살림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인연으로 1991년 흠살림과도 그 뜻을 함께 했다. 흠살림 평생 회원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흠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운동에 앞장 선 것이다. “지금이야 친환경 농업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어. 그런데 아직도 그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한 게 현실이야.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가 중요해. 돈이 중심이 되어선



정광영 선생님이 작성해 온 영농일지(왼쪽 사진). 이 영농일지에는 작업량과 시간, 유기농자재 사용량 등 하루 일과가 꼼꼼히 적혀 있다.



정광영 선생님이 작성해 온 영농일지(오른쪽 사진). 이 영농일지에는 작업량과 시간, 유기농자재 사용량 등 하루 일과가 꼼꼼히 적혀 있다.

안 돼. 농사는 온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정 선생님은 친환경 인증보다 중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본다. “인증을 받았다 해도 부정 한 일을 남모르게 할 수도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 정직하게 농사짓는 그 마음이 첫째인게지.”

■ 습관이 힘이다  
정 선생님께겐 보물이 하나 있다. 바로 35년여 째 계속 써오고 있는 영농일지다. 단 한 해도 거른 적이 없다. “1970년대 말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이 벌어졌지. 그런데 제값을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정 부에 자료를 주기 위해 영농일지를 쓰기 시작했어.” 이렇게 쓰기 시작한 영농일지는 정 선생님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또 농자재는 얼마나 썼는지 등등 농사 재배력의 체계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1983년 4월 10일 못자리용 비

닐 두 통 구입 22,000원’ ‘1985년 7월 1일 김매기 남 12시간 여 12시간’ ‘2013년 4월 11일 썰겨 살포 15시간 인원 3’ 이런 식으로 꼭꼭 눌러쓰신 세월이 35년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정 선생님은 이것이 별반 대수롭지 않은 눈치다. “습관만 들이면 가능한 일인데...”  
■ 습관이란 것은 아마도 성실함의 다른 말일 것이다. 이런 성실함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1990년대 후반 매산리 공동체가 결성됐다. 인근 농가 13가구가 힘을 합쳐 친환경농업에 함께 뛰어들었다. 나이가 너무 들어 농사를 못 짓거나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제외한 9농가가 현재까지도 공동체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 사회가 되면서 농업이 뒷전이야. 농사가 모든 산업의 기본인데 말이야. 바로 생명유지 산업이 농사잖아.”  
정 선생님은 농사짓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경시되는 풍조가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다.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중요성을 현대인은 잊고 산다는 것이다. 정 선생님은 최근까지 논 3,000여 평과 밭 1,000여 평에 마늘·양파·감자·생강·무·고추 등을 심어왔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올해 이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야. 인터뷰 도중 몇 번이나 올해 농사를 걱정하셨다. 자나 깨나 농사 생각뿐이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난 농민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농사를 지어 왔어.”  
정 선생님의 그 자부심이 바로 친환경농업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의 든든한 베이스캠프라는 것을 깨닫는다.

글 이방형 기자

# 2013년 현장농민연구원 총정리

홍살림의 현장농민연구원 탐방은 유기농업 현장연구 강화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기농업의 기술 확산과 보급을 위해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한해 홍살림과 함께 해온 현장농민연구원들의 시비 및 토

양관리법, 병해충관리법, 재배기술을 한자리에 정리해봅니다. 생산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 4월 김봉기 (충북 청주)

재배 작물 - 토마토, 생채, 고추.  
재배 형태 - 하우스  
재배 규모 - 2,100평(수도작 별도)



1. 재배 현황
  - 오이맛 풋고추 3월 중순부터 1년 내내 수확
  - 이전 해 2월 정식 후 나온 꽃눈으로부터 2년 간 수확 후 같이엮고 토마토 윤작
  - 가온 하지 않고 3중 수막처리 : 겨울 재배 가능
2. 시비 및 토양 관리
  - ▲ 초기 흙작업
    - 인분, 가축분 등 질소질 원료를 넣고 버섯박(10톤) 투입(200평)
    - 2~3가지 미생물을 뿌리고 하우스 밀폐 후 온도를 높여 발효.
    - 3일 후 하얗게 곰팡이 발생. 몇 차례 반복
  - ▲ 기비
    - 고추 : 200평 기준. 균배양제 40포, 규산 4병, 붕사 2kg, 표고버섯박 10톤
    - 생채 : 200평 기준. 균배양제 21포, 고토 6포, 규산 4병, 붕사 2kg
    - 콩물 사용 : 인근 된장공장에서 공급. 콩 삶은 물, 막걸리, 당밀, 청초액 섞음.
  - ▲ 추비
    - 자가 제조 액비 사용, 토마토순

(1/3), 바닷물(20L), 부엽토(20L), 물(500L) 일주일 발효, 25L/200평 일주일 간격 사용

- 토마토순 : 옥신, 지베렐린 등 호르몬 함유, 고추밭에서는 고추잎 사용.
- 바닷물 : 잠균 제거, 내염성균 사용

3. 병충해 관리
  - 흰가루병 방제. 폐숯을 20평 당 한포 정도 뿌림
4. 재배포인트
  - 퇴비 원료를 밭자리에서 발효시켜 연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과 해충의 알들을 고온으로 사멸시킴
  - 지속적인 미생물 사용으로 연작 장애 및 과영양에 대한 예방
  - 자가 액비 및 퇴비의 철저한 발효로 작물에 해를 가하는 조건들을 제거함.

## 5월 양관직 (충북 증평)

재배 작물 - 완숙토마토, 버  
재배 형태 - 하우스, 노지  
재배 규모 - 수도작 1만평, 토마토 3,000평



1. 재배 현황
  - 7월 10일 ~ 7월 말까지 정식. 12월 중순까지 재배
  - 1월 정식 예정. 정식 후 3화방 열릴 때부터 추비
  - 수량이 적고 뿌리 상태 좋지 않음. 비대하지 않고 곰팡이병 피해
2. 시비 및 토양관리
  - ▲ 기비
    - 버섯박, 발효퇴비, 균배양제, 균 보 조 유박활용
    - 자가 제조 퇴비 (무항생제 계분, 버섯박, 쌀겨) 사용 하였으나 유기물 과다 상태임
  - ▲ 추비
    - 3화방이 열릴 시기부터 조금씩 공급
    - 홍살림 해초, 바이오슈, 마실러스, 광합성균 공급
    - 갈습 공급 위해 난각갈습 자재(계란껍질 + 현미식초) 만들어 사용함
  - ▲ 물주기
    - 화방별로 물관리, 생장점을 확인하면서 물 관리함
    - 수확 시기 관주를 적게 하여 토마토 과 무름 현상을 방지

3. 병충해 관리
  - 토마토만 8년 연작하므로 선충 또는 세균병 방제가 관건임
  - 선충 발생. 토양 1kg에 400마리 정도. 피해 입을 정도는 아님
  - 토양 소독: 쌀겨와 물, 방선균 넣고 한 달 정도 시설 문 닫아두면 55℃ 이상 오름. 선충 방제 및 염류 집적 해소
  - 햇골에 보리 심음: 진딧물 피해 방지, 체조 효과, 장마피해 방지, 유기물 공급
4. 재배포인트
  - 수확 시기 생장점을 확인하면서 관주량을 조절하고 관주 시 액비를 통해 꾸준한 양분 공급을 하여 작물의 생육을 고르게 유지함.

## 6월 조재문 (충북 청원)

재배 작물 - 방울토마토.  
재배 형태 - 하우스  
재배 규모 - 3,600여평



1. 재배 현황
  - 3품종 재배: 하트방울, 미니찰, 유니콘
  - 2월 23일 정식: 터널 설치 후 과습으로 인한 병해 예방 목적으로 규산 2~3회 사용
2. 시비 및 토양 관리
  - ▲ 기비
    - 퇴비(1.5kg/평)와 혼합유기질비료(1kg/평) 사용
    - 퇴비 제조장에서 퇴비 제조하고 나온 부산물 가져와 사용
  - ▲ 추비
    - 질소질 공급을 위해 구아노 사용
    - 조직 강화를 위해 꾸준한 규산질 비료 사용함
3. 병충해 관리
  - ▲ 병해 관리
    - 일교차로 인해 이슬이 중간 부위에 맺혀 과습 조건 형성 잎곰팡이 발생 : 새벽과 주간에 환기팬 작동함. 꾸준한 규산 사용으로 잎에 큰 피해 없음
    - 수확기에 예방삼아 황소화제 사용
  - ▲ 충해 관리
    - 3화방 근처 잎골파리 일부 발생함

- 토양 선충이 있었으나 친환경 약제 3일 간격으로 2회 사용하여 박멸함

4. 기술 포인트
  - 꾸준한 규산질 비료 사용으로 작물 조직을 견고히 하여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
  - 퇴비 제조 부산물과 같은 거친 원료로 기비 작업하여 토양 내 공극 확보 및 정식 후 뿌리 활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줌

## 7월 임화순 (충북 청원)

재배 작물 - 방울토마토  
재배 형태 - 하우스  
재배 규모 - 2,400평



1. 재배 현황
  - 방울 토마토 품종: 유니콘, 대추방울
  - 2월 23일 정식, 가온하지 않고 터널 설치함, 60일 자가 육묘
  - 정식 후 1화방에 10개 정도 개화하면 수정별 투입함
  - 내림재배 시도함. 현재 18단 (2012년까지는 8~9단)
2. 시비 및 토양 관리
  - ▲ 기비
    - 축분퇴비(툽밥 45, 축분 35, 미강 15, 미생물 5) 사용
    - 한 동(150평)에 20kg 100포 사용/권장량 평당 1.5~4kg
    - 토양시비처방 결과 양분보존능력 17.2로 높은 편임
  - ▲ 추비
    - 관주 시 유기 가리 투입
    - 화방 맺힐 때 갈습 엮면시비. 일주일 1회 계속적으로 사용
  - ▲ 물주기
    - 생육시기에 상관없이 3일에 한번 관주함
    - 영양생장기에 햇골이 잠길 정도로

- 2~3회 관주함
3. 병충해 관리
  - ▲ 병해 관리
    - 살균용으로 '황'자재 일주일 간격 3회 사용
  - ▲ 충해 관리
    - 온실가루이 작년부터 거의 발생 안 함. 이전에는 끈끈이 트랩 사용함
4. 기술 포인트
  - 토마토 정식 후 뿌리 활착 후 영양생장기 시작 시점에서 햇골에 물을 채움으로써 염류집적 및 과영양화 피해를 방지함
  - 내림재배로 15단 이상의 화방을 맺으면서 많은 양의 퇴비와 비료를 소진.

# 작물에 맞는 토양관리가 기본

## 8월 최근태 (충북 옥천)

재배 작물 - 포도 (알렉산드리아, 캄벨, 머루포도 등), 토마토  
재배 형태 - 비가림  
재배 규모 - 2,000여 평 (하우스 5동)



- 1. 재배 현황**
  - 가을 장마기에도 유일하게 당도가 떨어지지 않은 종이 알렉산드리아였음.
  - 알렉산드리아 연합회: 옥천, 고창, 아산, 충주 약 60여 명 구성
- 2. 시비 및 토양관리**
  - 작기에 포도 2톤 수확하면 다음 밭거름으로 퇴비 2톤 투입. 부족 영양원 보충
  - 밭거름으로 우드칩과 균배양체, 유박 사용함
  - 초기 토양분석 결과 사질토, 유기물 함량 1.5~1.7 나왔었음 -> 우드칩 40톤 투입 후 3.5~4 정도, 목표는 유기물 함량 5~6.
  - 폐화석 100~200kg/300평 사용함. 한 번 넣으면 5년 정도 유지 됨.
  - 청포도의 경우 산도 7.5~8이 적정 산도인데 폐화석으로 산도 유지 됨.
- 3. 병해충 관리**
  - 깍지벌레 발생으로 작년까지 고생함. 작년부터 페로몬 트랩(그린아그로텍), 교미교란제 사용으로 전년도의 5% 수준으로 감소함. 나머지는 고삼추출물로 방제함. 효과 좋음
  - 방제시점: 포도 눈뜨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1~2회, 1년에 5회 미만. 유아동에 포함 된 곤충을 보고 종류에 따라 방제 방식 바꿈.

- 흰가루병 발생함, 토마토와 같은 하우스에서 키우다 보니 토마토에서 옮김
- 토양수분 60~70% 유지되어야 함. 3일 간격으로 10~30톤/300평 관주
- 초생 재배: 벌레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 줌. 지상부를 베고 나면 뿌리가 안에서 썩으면서 그 자리에 물과 양분이 함께 들어가 발효 됨. 지하부의 깊이만큼 양분이 들어가므로 썩기로 가는 것보다 효과가 좋음. 별도로 가는 작업도 하지 않으므로 노동량이 일반 농가의 1/10 정도 수준임.

## 9월 이관재 (충남 공주)

재배 작물 - 밤  
재배 형태 - 노지  
재배 규모 - 24,000여 평



- 1. 2013년 재배현황**
  - 국내 밤나무들은 보통 15~30년이면 늙기 시작함. 수확량이 감소. 토종 밤나무 개량종들은 오래 수확 가능함
  - 품종은 약 34가지. 신품종, 가공용으로 전망이 있는 품종 선택하여 재배함
- 2. 시비 및 토양관리**
  - 유박, 퇴비 사용함
  - 토양 산성화 방지를 위해 석회석 투입. 토양 산성도는 6에서 약간 적은 정도
  - 영양생장기에 질소질 원료 투입: 산야초액비 + 생선아미노산 + 발효 미생물(미생물은 산꼭대기 부엽토에서 토착 미생물 직접 채취하여 사용함. 특정 미생물이 우점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함) 교배기에 인산질 원료, 생식생장기에 칼슘질 원료를 넣어서 액비 만든다.
  - 당도 증진을 위해 으름열매를 이용한 녹즙과 미생물을 500배 희석하여 엷면 시비함
  - 수확 후 지온 저장고에 30일 정도 숙성하면 30브릭스까지도 나옴
- 3. 병해충 관리**
  - 살충등을 곳곳에 설치. 매일 포획된 벌레들을 조사한 결과 벌레 종류만 11여 종, 익충이 20종, 해충이 90 여종이

나 익충이 해충이 될 수도 있고 해충이 익충이 될 수도 있다.

- 직접 해충 유인해 빠뜨려 죽이는 유인살충제 제조하여 사용(아까시 꽃을 이용한 천연 녹즙을 막걸리에 2~3배 농도로 타서 갖을 썬 병에 2/3 정도 채움, 벌레들이 유인되어 빠져 죽음, 살충제로 충남 농업발전대상 수상)
- 현재는 교미 교란제를 사용하여 방제함.
- 마늘을 이용한 한방영양제를 엷면 살포 함

- 4. 재배 포인트**
  - 1차 생산물만으로는 어려움. 가공용에 적합하고 전망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함
  - 전지 전정을 통해 밤나무 키를 작게 유지함. 대립 과실을 얻고, 일조량을 좋게 하며,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 몇 번의 시행착오 거쳐서 수형을 안정시킴.

## 10월 박오식(경북 상주)

재배 작물 - 배  
재배 형태 - 노지  
재배 규모 - 8,000여 평



- 1. 재배현황**
  - 16~20년산 성목만 있음
  - 주품종 신고 80%, 원황, 추황 20%
  - 측지가 다 젊은 편이고 질소가 적으면 꽃눈이 퍼지지 않고 뽕죽. 과가 잘 맺힌다.
- 2. 시비 및 토양 관리**
  - ▲ 기비
    - 균배양체 한 그루당 20kg, 부산물 완숙 퇴비 한 그루당 20kg
    - 참치, 다시다 부산물 여름에 사용함. 4포(50~60kg)/주
  - ▲ 추비
    - 영양제로 멀치 액젓(질소 공급용), 당밀 사용
    - 멀치 액젓 비료 자가 제조
    - : 멀치 액젓 40L + 당밀 10L + 효모(이지스 효모 - 동물 사료용) 3Kg --> 3일 간 발효 --> 미생물 (팔마) 2Kg 첨가 --> 3일 간 발효
  - ▲ 기타 관리
    - 봉화에서 가져온 옥가루 사용함. 칼슘 4%, 마그네슘 19.8%, 규소 약간, 주 당 2삽 정도. 12톤/10,000평 (600만 원 정도) 옥가루 우려서 엷면 살포도 함. 15일 주기로 반복 살포함. (충 방제도 효과 있다고 짐작) 옥가루 사용으로 pH가 약간 높아진 것을 보임. 배는 약산성이 적합하다고 함
    - 유목의 경우 토양 관리가 관건.

처음에는 탄질율이 높은 것 투입 (우드칩 등)

- 우분은 비효가 한꺼번에 올라오므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음.

- 3. 병해충 관리**
  - 유향합제의 경우 동해 방제에 사용함, 유향의 효과가 하루 밖에 가지 않아 지속성이 떨어짐
  - 신고 대목으로 하여 만황 재배하였더니 병에 안걸림. 원황 품종도 병해 거의 없었음
  - 열기 전에 유향 살포해야 함. 전지 전정보다 우선함. 시기 놓치면 사용 못 하므로.
  - 작년에 교미 교란제 사용하여 심식 나방 등 방제
- 4. 재배 포인트**
  - 전정은 일반 관행 재배와 비슷하게 하나 통풍, 통향에 신경 쓰는 방향으로 하여 과면무를 피하고 물이 빨리 마르도록 한다. (병 발생 방지)

## 11월 권득산(경북 상주)

재배 작물 - 감(곶감)  
재배 형태 - 노지  
재배 규모 - 520 여 평



- 1. 재배 현황**
  - 감 과원 옮김 : 20년생 미만 감나무 240여 주, 콩고추·들깨와 혼작, 원래 논이었던 용지를 초기 제조 후 1년 정도 묵힌 후 과원으로 사용(원래는 3년 정도 해야 함), 복토 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어서 배수 불량으로 혼작 중인 고추에 탄저 일부 발생.
  - 20년 생 이상 80~90 주
  - 과가 작년에 비해 작음 (황산加里 또는 활인산 주전)
  - 10년 정도는 되어야 감나무가 살지 죽을지 결정됨. 20년 이하는 유목
  - 250년, 500년 된 감나무 일차했었음. 250년 수령목 경우 한 주 당 5000~8000개 정도 나옴. 고목일수록 감이 찰짐. 500년 수령목 품종은 고통시 - 30~40년 생 2,000개 정도 나옴. 10년 생의 경우 300~400개 정도.
- 2. 시비 및 토양관리**
  - 칼슘 공급위해 밀거름제로 황산加里와 입상석회를 주당 한 삽(약 1~2kg) 정도 넣어줌.
  - 균배양체는 20년 이상 대목에는 주당 1포(20kg) 사용. 5년생 이하는 1/3 포 정도 사용함.
  - 새로 이식한 감에만 석회 사용함
  - 동해 방지 위해 5월 초 갈잎 나오는 때 바이오솜 지속적으로 사용함.
  - 질소질이 많으면 둥근무늬, 점무늬

병 등 병해를 자주 입고 감이 늦게 익는다.

- 3. 병해충 관리**
  - 탄탄탄, 잎살림 사용.
  - 황수화제 사용은 장마기 6월 중 하순, 8월 말 병징 나오기 시작할 때 사용
  - 습+황수화제 - 점무늬 병에 사용. 잎 나오기 전 동절기에 사용함
  - 돼지감자 잎을 삶아서 나온 물을 사용 -> 담배 나방에 효과 좋음 (물 500리터 당 4리터 사용 추정)
- 4. 재배 포인트**
  - 등시만 심으면 수정이 불량하여 단감 일부를 수순수 역할을 위해 심어야 함.
  - 고온기 황수화제 사용 시 작물의 호흡 저해 하여 생육이 불량해 짐
  - 저온 건조 시 나오는 물 (감에서 빠져 나온 수분)는 다음 작기 감 재배에 사용하면 좋음
  - 곶감은 자연 건조 : 12도 내외, 습도는 0에 가깝게.



“**흙살림 신문 200호 발행 기념 이철수 목판화가-이태근 대표 대담**”

이태근 대표(오른쪽)와 이철수 목판화가가 흙살림 신문 200호를 기념해 대담을 가졌다. 이철수 화가는 그림 그릴 땐 계산이 많지만 논밭으로 가면 계산이 없어진다며 농사를 예찬한다.

이철수 목판화가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목판화가로 1981년 첫 개인전을 통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폭압적인 사회에 보내는 저항의 언어들로, 서정적이면서도 격렬한 선묘 판화와 처음 본격화하던 출판 미술운동 등, 1980년대 내내 판화를 통한 현실 변혁운동에 열심이던 그는 1988년 무렵 자기 성장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판화영역을 확대해가기 시작한다. 간결하고 단아한 그림과 선가의 언어방식을 끌어온 촌철살인의 화제를 혹은, 시경이 넘치는 짧은 글이 어우러져 '판화로 시를 쓴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현재 그는, 체천외곽의 농촌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짓고, 판화를 새기고,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지낸다.  
-<이철수의 집>홈페이지중

# “**흙살림은 유기농 원조집이 돼라**”

흙살림 신문 200호 발간을 기념하며, 이태근 흙살림 대표와 이철수 목판화가가 대담을 가졌다. 이철수 화가는 흙살림의 주주이면서 흙살림 로고와 제호를 만들어주면서 흙살림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대담은 지난 2월 25일 충북 제천 외곽에 있는 이철수 목판화가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이태근 대표(이하 이태근) :** 흙살림 초창기 로고를 만들어 주셨다. 당시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철수 목판화가(이하 이철수) :** 로고는 자연에 기댄 삶을 표현하고자 했다. 흙, 하늘, 해와 작 (생명)을 단순하게 이미지 조합하듯 만들었다. 1994년 쯤 당시 난 유기농업 흥내를 내고 있었다. 목초액을 얻어다 쓰기도 했고, 미생물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유기농자재를 누가 공급해주거나 거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괴산미생물연구회(흙살림 전신)가 그런 꿈을 가지고 일한다고 해서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그래서 가까이 로고도 만들어주고 출자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난다.

**이태근 :** 지금 흙살림 신문의 제호는 조금 바뀌었다.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

**이철수 :** 정농회 1세대가 고군분투하던 시절 유기농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쪽으로 곡해됐다. 젊은 시절엔 나도 그 의견에 공감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도 변했고 현실도 변했다. 유기농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있다. 흙살림도 그런 요구에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뀐 시대적 감수성에 부합하고자 했다. 초기 제호가 농사꾼 손치

를 거칠고 투박했다면, 지금 신문의 제호는 아기자기하고 부드럽고 예쁜 글씨다. 바뀌 놓고도 참 잘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이태근 :** 첫 글씨에 익숙해져서인지 제호가 바뀌었을 땐 이상했는데 자꾸 보니까 정감어리다. **이철수 :** 이제 또 디자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싶다. 젊은 감각으로 재가공해서 쓰는 방식도 괜찮을 것이다. 느낌은 그대로 살리면서 디자인에 변화를 주면 좋겠다. 시대에 따라 대중적 감수성이 크게 바뀐다. 그걸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게 디자인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되겠지만 본질은 오래 유지하되 표피적인 것은 바뀌는 것이 발전해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다.

**이태근 :** 흙살림 신문 200호를 맞아 판행을 타블로 이드로 바꾼다. 농민, 생산자 중심의 신문에서 꾸러미와 같은 소비자들도 함께 아우르는 신문을 만들고 싶어서다. **이철수 :** 좋은 생각이다. 흙살림이 사업 영역을 확대한 셈이니, 농민들만 대상으로 한 신문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흙살림이 운동하면서 다들 느끼신 거겠지만, 과거엔 의식 있는 농민들이 선도적으로 쇄신해 가고, 뒤늦게 상품 홍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해진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도 지체로워지고 생산자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많아진 것 같다. 미디어들도 쌍방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의미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으로 입지를 바꿔나가는 것은 잘하신 것 같다. 스마트폰이나 SNS같은 새로운 매체도 잘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태근 :** 평소 흙살림을 지켜보면서 한마디씩 건네준 게 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가 큰 고민이다. 지금 최대의 고민은 앞으로의 길이다. **이철수 :** 흙살림 뿐만 아니라 이

하고 확인하는 진짜배기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흙살림은 농산물을 검증할 수 있는 내부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특별한 조직이다. 생명농업 차원의 품질 보증을 할 수 있는 유기농업의 터줏대감, 원조집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이태근 :** 흙살림 신문도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몫이 있을 것 같다.

**이철수 :** 흙살림의 의미와 가치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흙살림 신문 속에는 지금까지 그런 고민이 담긴 페이지를 잘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다. 흙살림 신문의 유기농업 자체 상품 광고안에서조차도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도시농업이나 텃밭 같은 손바닥 농

사 할 때도 이런 자재들이 필요할 텐데 흙살림 자체가 필요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미생물연구의 선구자적 위치를 알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하는 게 왜 필요할지를 알아야 다양한 물건 속에서 흙살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지 못했는데 흙살림 배배는 방식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 작년엔 고추농사 잘 지었다. 나에겐 구세주를 만난 느낌이었다.

**이태근 :** 소비를 통해서도 세상이 바뀔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철수 :** 사회 큰 흐름은 개인을 고립되고 파편화시키려 하는 것 같다. 고립된 소비자, 소비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함께', '연대' 이런 요소를 인간관계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파편화된 소비자는 인간 존재의 존엄성, 가치를 소비의 등급까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안남을 것 같다. 반면 유기농이란 선택은 훨씬 의미가 있다. 땅가지는 지구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환경문제에 옐로우카드를 보이는 선택이라는 의미다.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도 조금씩 서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태근 :** 이철수 선생님도 귀농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쉼인데, 시골 생활 살아보시니 어떻나.

**이철수 :** 농촌이 구원일 거라 생각하고 막연히 왔는데 구원은 무슨 구원! 힘들더라. 식구는 김매기 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이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다. 피약에서 이랑 숫자나 세고 있더라. 농사가 구원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농사짓는 아픔과 기쁨을 같이 느낀다. 30년 하나라 느껴졌다. 그런데 그 재미로 한다.

**이태근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철수 :** 시골에 살면 재미있는 것도 많다. 이게 대추를 고아 갠 것과 섞어 만든 대추엿이다. 시골에 살면 이런 명품엿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또 꼭두마리처럼 5m 짜리 셀러드도 꼭두수 있다. 시골 생활을 우습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환상적으로 소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하.

정리 이방형 기자



**진짜배기 유기농 찾기 어려운 현실 농산물 검증 역량 갖춘 흙살림 터줏대감 역할로 자리매김하길**

는 조직이건 규모가 커지면 초심이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예전엔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는 형제적 분위기였는데,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다. 이런 변화가 생산자를 공급자 위치로 전락시키고 있다. 생명이라는 철학을 매개로 함께 한다는 느낌을 못 갖는 것이다. 이 부분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기농이 흔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아무데서나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좀더 싸고 때깔 좋은 물건에 혹하기 쉽다. 진짜 유기농인지 검증



# 가족 건강 챙기려 꾸러미 먹어요

## ‘흫살림 꾸러미 5년’ 회원 설문조사

2010년4월부터 시작된 흫살림 꾸러미가 200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꾸러미는 유기농가의 텃밭에서 생산된 채소는 물론 철마다 출하되는 신선채소의 발빠른 수요저였다. 또한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사업단의 가공품을 취급하면서 가공농가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효과도 만들어왔다. 꾸러미를 소포장해서 챙겨보내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유기농가에 대한 격려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꾸러미는 그 자체로 농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매개가 되어 왔다. 흫살림 꾸러미가 상생의 매개체로서 역할이 완결되는 데는 이를 알고, 찾아주는 소비자 회원이 있기 때문에 입을 강조하고 싶다. 회원들은 꾸러미의 어떤 점을 좋아하고, 불편해하는지 알아보고 꾸러미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친절히 답변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간략히 결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꾸러미 가입 동기  
 흫살림꾸러미를 가입하는 동기는 가족건강(34%)>제품이 좋고 믿을 수 있어서(27%)>농업을 살리기 위해(17%)>편리해서(12%)>저렴해서(5%), 환경보호(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먹을거리속에서 가족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다가 흫살림 꾸러미를 가입하게 되었고, 이용해보니 제품이면서도 좋고, 믿을 수 있어서 이용한다는 회원들이 많았다. 이어 꾸러미를 이용하면서 농업을 살린다는 취지로 소비하는 회원들도 있어 흫살림 꾸러미가 유기농가의 생산기반이 됨을 알고 함께 하는 회원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래서 좋다  
 흫살림 꾸러미를 이용하면서 만

족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가족건강(27%)>장보는 수고 경감(19%)>물품의 품질(17%)>물품의 다양성(14%)>안전한 배달(13%)>가격(5%)>담당자와 소통(3%)>기타(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을 위해 시작한 꾸러미를 통해 건강과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스러워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건강과 편리함을 챙겨주는 꾸러미는 품질면에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회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

유정란 · 채소류  
 제일 만족

반복된 품목 공급  
 개선점 지적

상품으로서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이것이 좋다  
 회원들이 좋아하는 품목은 유정란과 채소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유정란은 중복 보은 산골에서 마당에 풀어놓고 키운다. 조류독감으로 전국이 시골할 때도 조용히 지나가는 곳이고, 뒷산의 야생동물이 내려와 어미닭이 놀랐다는 소식은 종종 듣고 있다. 가마솥으로 만든 콩세알 두부와 손으로 만든 건강안공 두부는 첨가물없이 콩과 간수만으로 만들어 고소한 맛에 회원들이 좋아하고, 가공공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회원과 소통하고 꾸러미를 개선하고자 하는 설문조사에서 회원들이 어떤 때 불편한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회원들은 꾸러미 물품이 남을 때가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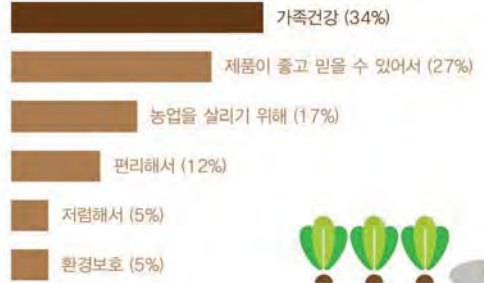
곤란한데, 반복적인 품목이 공급될 때나 요리방법을 잘 모를 때 남게 되어서 불편한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반대로 물품의 품질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택배방식으로 전달되다보니 기온과 채소의 특성에 따라 상반되는 경험을 하는 회원도 있었는데, 회원들에게 발송된 물품이 남지 않도록 맛있는 요리방법의 안내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성을 다해 생산하고, 포장된 꾸러미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매회 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겠다.

꾸러미 5년간 여러 방식의 포장방법을 시도해보았는데, 2013년엔 스티로폼박스 꾸러미 맞춤형을 개발하고, 채소봉투는 신선보관율이 더 낫다는 재질로 바꿔보았다. 택배방식인 꾸러미로 이런 점은 지속적인 보완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득이 발생하는 포장에 대해서도 한번씩 반성해보지만, 택배도착시 물품의 손상이 우려되어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냉매는 20개 이상 모아 전화로 반품신청을 하면 돌려받고 있으니, 회원들의 참여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다.(080-858-6262)  
 흫살림은 꾸러미 5년을 맞으며, 농부와 소비자의 상생 매개체로 꾸러미가 더욱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돌아보고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 선물당첨자

※설문조사 참여로 선물에 당첨되신 분입니다. 다음달 수 꾸러미 발송시 소정의 선물을 추가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281\*-775\*(서울),  
 010-331\*-937\*(인천),  
 010-478\*-498\*(서울),  
 010-282\*-477\*(서울),  
 011-951\*-489\*(부산),  
 010-416\*-108\*(서울)

### 흫살림꾸러미 가입동기는?



### 흫살림꾸러미에 만족하는 점



### 알림

※흫살림 꾸러미를 소개해주세요~~  
 지인소개를 통한 꾸러미 신규가입시 유기농 토마토로 만든 케첩을 선물로 드립니다. 꾸러미 신규가입시 소개해 준 회원의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가입방법 <http://shop.heuksalim.com> 의 회원을 가입하면서, 가입경로를 선택하세요. 회원가입후 꾸러미 신규구매시 꾸러미와 함께 유기농 토마토 케첩을 보내드립니다. (3월15일까지)

흫살림 HEUKSALIM | 흫과 농인과 환경을 살리는 흫살림

흫과 햇살이 주는 건강한 선물

# 흫살림꾸러미

친환경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매주 집에서! 흫살림꾸러미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생활꾸러미

가장 기본이 되는 꾸러미입니다. 유기농·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우리콩 두부 및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간식거리로 구성된 꾸러미입니다.  
 [월 4회 : 10만원, 월 2회 : 5만원]

### 채소꾸러미

채식인,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꾸러미입니다. 생활꾸러미에서 계란난 육가공, 수산가공품은 빼고 유기농·무농약 채소를 모았습니다.  
 [월 4회 : 6만원]

### 과일꾸러미

과일은 농약없이 키르기 힘들어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친환경 과일과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과일꾸러미입니다.  
 [월 2회 : 6만원, 월 1회 : 4만원]

#### 흫살림꾸러미는 무엇이 좋은가요?

- 건강한 먹을거리, 직거래로 편안하게 받아오 친한형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매주 품목을 달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 밑에서는 농부가 안전하고, 밥상에서는 가족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생산과 소비의 나눔 공동체 실현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 매주 꾸러미가 기대돼요! 반복되던 식단에서 벗어나 꾸러미를 활용한 다양한 식단을 완성하세요.

꾸러미 구입문의 080-858-6262 | 010-9864-8007(문자상담가능) | [shop.heuksalim.com](http://shop.heuksalim.com)

Copyright © VDOOZ Co., Ltd. All rights reserved.

# 유기농업은 토양 산성화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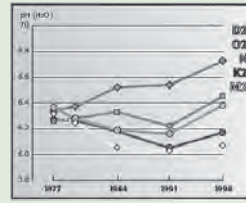
## FiBL 21년간 현장시험 결과 보고②

■ 유기농업에서 양분투입과 산출은 균형이 맞는가  
유기농업 시스템은 무기비료의 외부적 투입을 피하고 있다. 대신 양분은 작물에 의해서 토양으로부터 흡수된다. 그러므로 유기 시스템에서의 양분 균형은 주요 원소 질소, 인산, 칼륨에 대해 마이너스가 된다.  
질소 균형은 모든 시스템에서 마이너스이다. 이것은 질소 시비는 작물의 흡수보다도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소 미네랄화, 콩과 작물에 의한 질소고정과 비에 의해 공급되는 질소는 이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관행 시스템에서 인산은 과잉을 보였는데 유기 시스템에서는 인산 균형이 마이너스였다. 오직 무기비료를 준 구만 칼륨이 과잉을 나타내었다. 유기 시스템은 가장 큰 결핍을 보였다. 칼

숨은 모든 구에서 충분히 시비되었는데 바이오다이나믹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과잉을 나타냈다.  
■ 유기농업은 에너지 측면에서 건전한가  
유기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관행 작물보다 적은 화학 에너지를 사용한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은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이다. 수량 단위의 생산에 기여하는 모든 요인들은 할당된 에너지 단위이다.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트랙터 연료 같은 직접적인 에너지 요소와 비료와 농약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은 간접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작물 수량은 관행시스템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작물 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차이는 유기 시스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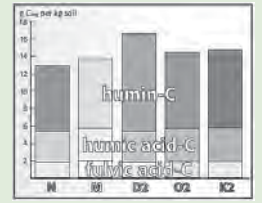
19퍼센트만 낮았다. 면적단위로 보면 이 차이는 30~50퍼센트이다. 대부분의 차이는 외부 생산요인으로 인한 것이었다.

■ 유기농업은 토양에게 건강한가  
유기 시스템에서 시비는 유기물 함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토양 산성화를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토양 유기물과 pH는 토양구조, 생물학적 활동과 작물 생육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친다. 토양유기물은 DOK 시험의 모든 시스템에서 감소하였다. 구비를 주지 않은 토양에서는 토양 유기물의 감소가 구비를 준 토양보다 높았다. 구비를 준 시스템에서의 토양 유기물의 손실은 거의 비슷하였는데, 세번째 작기가 끝날 무렵 바이오다이나믹구에서의 유기물 함량은 관행구에 비해 15퍼센트, 그리고 구비를 주지 않



토양 산성도

초기값과 비교하여 바이오다이나믹 구의 pH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유기 및 무시비구에서는 같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양관행시스템에서는 감소하였다. pH 감소는 사용한 비료의 산성화 효과 때문일 것이다. 1999년에 관행구는 생석회로 처리하였고 더 이상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알칼리 비료를 시비하고 있다.



부식을 파편중의 탄소분포

전체 토양유기물 함량은 관리변화에 느리게 반응한다. 토양분획은 토양 유기물을 풀에 정의된 기능적 특성을 부여한다. 바이오다이나믹 처리에서 더 높은 토양 유기물 함량은 휴면 파편에 의해 대표되는 안정된 유기화합물의 높은 비율 때문이다.

은 구에 비해 30 퍼센트 높았다. 퇴비화된 구비의 사용은 더 높은 비율의 안정된 유기물 복합체를 보였던 화학적 분류에 의해 확인

된 바와 같이바이오다이나믹 시스템에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토양 pH와 유기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계속>

## 모잠비크에서 유기농을 말하다③

# 남아공 이주 농민 토마토로 대박

일부 농민들은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 돈을 벌고 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도시 근교에서 채소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현재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일을 찾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규모도 1ha가 되지 않는 땅에서 연중 쉬지 않고 채소를 생산한다.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시작해서 40이 넘는 지금까지 농사일을 해 왔다고 한다. 매년 조금씩 땅을 늘려왔는데 그것도 농사를 포기하는 이웃이 부락해서 약간씩 무리해서라도 땅을 구입했다고 한다. 다행히 농사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조금씩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도시근교에서 농사로 돈을 벌었다는 중국인들도 있다. 채소농사를 지어서 3~4년간 하다 보니

돈이 되어서 더 확대를 하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 문제는 주변의 노는 사람들이 밤에 와서 작물을 훔쳐가는 것이다. 담을 치고 개를 길러도 완벽하게 방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소농사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다. 하기에 따라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다.  
돼지를 기르는 사람도 있다. 돼지를 매일 몇 마리씩 잡아서 판다. 직접 기르는 농장에서 현지인들을 시켜 돼지를 잡으면 상인들이 와서 사간다. 생산이 오자라는 판이다. 규모를 계속 키우고 싶지만 관리상황을 보아가면서 규모를 결정한다. 현재 약 1000두 규모를 유지하는데 그 이상은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남아공에서 온 농민도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있다. 남아공의 농업은 모잠비크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최근 들어 흑인들과의 토지문제로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일부 농민들이 아예 모잠비크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있다. 한 농민은 토마토를 생산하여 여름에 돈을 벌고 있다. 여름철에는 토마토 생산이 쉽지 않아서 가격이 치솟는다. 이 기간에 주로 생산하는 것이다.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철에 대량 생산을 하면 돈이 된다. 킬로당 3~4천원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때 매일 20트럭 이상씩 판매하는 규모는 한국의 농민이 상상하지 못할 규모이다. 물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상환하고도 이익이 남는다. 사람들은 남아공 농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



비료를 거의 쓰지 않는 농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비료나무를 기르기로 했다. 3종류의 콩과식물 나무를 길러 농민혼복 방식으로 작물 사이에 심어 비료를 제공해주는 개념이다.

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닌가. 남아공 농민이 할 수 있다면 모잠비크 농민도 할 수는 것이다. 문제는 안 된다고 미리 단정해 버리면 대책이 없다. 남아공 농민이 하나까 모잠비크 농민도 당면

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당연히 자금도 모자라고 기술력도 딸린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다. <계속>  
글 오과칠 휴살림 이사

**신개념 기능성 복합 생균제**

## 슈퍼 도움이®

<농가적가대용>

**제품의 특징 및 효과**

- 슈퍼도움이는 국내 환경에서 적용된 우수한 균주 중에서 선별된 미생물을 사용하였습니다.
- 유익한 미생물의 장내 정착을 유도하여 장내 생태학적인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 질저한 사양실태와 위생적인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높은 균 밀도를 유지하여 항상제로 익힌 가축의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 면역증강물질인 인산올리고당, 베타글루칸, 유기우슬을 등이 포함되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 대장균, 설모넬라균을 억제하여 장내 미생물총에 유익한 변화를 유도합니다.
- 미생물의 대사 부산물이 장내 산도를 조절하므로 유해균 발생이 억제됩니다.
- 분뇨의 악취를 감소시키며, 발효축진으로 분뇨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유전자 조작된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방법**

- 배합사료 혼합 : 사료 5톤당 5~10kg 혼합하여 사용

**사료비 절감을 위한**

## 발효도움이®

발효사료 제조용 생균제

**제품의 특징 및 효과**

- 발효도움이는 효소법의 특허미생물 기술을 바탕으로 선별된 우수한 미생물을 사용했습니다.
- 발효도움이는 국내 환경에 알맞은 우수한 생균제 제품입니다.
- 유익한 미생물의 장내 정착을 유도하여 생태학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만도나, 아민 등과 같은 유해가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 각종 유기산의 생성으로 소화효소를 활성화 시킵니다.
- 기호성을 증가시켜 사료효율을 향상시킵니다.
- 분뇨의 악취를 감소시키며 발효축진으로 분뇨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발효사료 제조시 발효환경을 최적화 시킵니다.

**사용방법**

- 원료 250kg 기준으로 발효도움이 1포(2kg) 혼합
- TMR 제조시 원료 1톤당 5포(10kg) 혼합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금처 동림 323-01-063992 | 애금주 (주)휴살림

# 햇볕 제약없는 옥상 활용하자

## 텃밭 정원 가꾸기 <1>

IFOAM(국제유기농운동연맹)은 2008년 모데나 총회에서 유기농업의 4원리를 정했다. 건강·생태·공정·배려의 원리가 그것이다. 이 중 생태의 원리에는 유기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소비하는 사람은 경관, 기후, 서식지, 생물다양성, 물과 공기를 포함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이롭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은 경관이다. 농사를 지을 때 작물을 생산하는 결과에만 치중하다보니 경관이 갖는 의미를 별반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흙살림은 '텃밭 정원 가꾸기'라는 시리즈를 통해 작가는 텃밭에서 크게는 대단위 농장에 이르기까지 작물을 생산, 수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작업을 함께 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일본 고베 노인 요양원 옥상에는 채소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다.

### 바닥에 직접 배수층 만들고 20cm 토심 확보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함께 키친가든(kitchen garden) 또는 우리말로 텃밭정원으로 불리지는 야채중심의 채소정원(vegetable garden)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미주와는 달리 단독주택에 딸린 외부의 정원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다양

한 유형의 공간조성 기법이나 장치들이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상자를 활용하여 햇볕이 비치는 작은 공간을 예쁜 채소정원으로 꾸며보는 것도 생활의 변화와 함께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만드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상자를 활용해 다양한 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 화분이나 용기를 활용하기 각 가정에서 꽃이나 관엽식물을 키우다가 버려둔 화분이나 스티로폼 상자, 나무상자 또는 그릇이나 대형의 용기 등의 폐품을 활용하는 것으로도 훌륭한 야채정원을 만들 수가 있다. 이동이 필요없는 안정된 곳이라면 퇴비나 곡식을 담았던 부대를 활용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식물생육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제작된 화분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배수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나 당근처럼 근채류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20~30cm의 흙 두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옥상공간 야채정원 만들기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나 그 강도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내나 베란다 공간과는 달리 옥상은 채소재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판재를 이용하거나 대형 플라스틱 용기를 활용하여 40~50cm 내외의 충분한 토심

을 확보한다면 무나 당근 등의 근채류와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의 비교적 큰 공간을 차지하는 채소도 무난하게 재배할 수 있다. 3.3㎡ 이상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에서는 용기를 활용하기 보다는 바닥에 직접 배수층을 만든 후 최소 20~30cm의 토심을 확보하여 옥상텃밭을 조성한다면 온 가족이 신선한 채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배수층의 조성을 위해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배수판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지만 굵은 모래층이나 배수가 양호한 토양을 10cm 이상 설치한 후 그 위에 식물의 생육을 위한 토양을 확보해 주는 것도 비용을 절약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 고베 노인 요양원 옥상 채소 정원 모습.

cm 이상 확보가 가능한 허브류나 옥잠화, 맥문동 등의 지피식물들을 함께 식재한다면 일년내내 신선한 채소와 함께 허브향 가득한 푸르른 정원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파라솔과 야외의자를 야채정원에 배치한다면 온 가족의 소통공간으로서 모두가 훌륭한 정원문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글 신인환 조경기술사

# 거름 해결의 다섯 원칙

## 옛 지혜에서 배운다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사람의 배설을 위생적으로 받고 처리하는 사회적 시설이 미비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우리의 과거에 이를 바가 아니다. 다만 우리는 똥과 오줌을 더러운 혐오물로 가까이 하는 것조차 꺼리는 관습에 젖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오물을 굽어보아서 귀중하게 농사용으로 쓰는 관습에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이는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지는 차이임에도 틀림없다.

Horace N. Allen(1858~1932)이라는 의사·선교사·외교관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저술한 「Things Korean」에 나와 있는 글이다. "외국인 방문객에게 조선은 오물과 악취의 나라라는 씻을 수 없는 인상을 준다. ... 중국에서는 오물의 취급

이 더욱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대낮에 인파가 들끓고 있는 거리에서 어깨에 가로질러 메고 있는 작대기 양끝에는 바켓을 매달고 그 속에 담긴 오물을 길바닥에 짹짹 떨어뜨리며 흔들흔들 걸어가기 때문에 거리는 온통 악취로 가득하다. 그래도 시민들은 이런 꼴을 불평없이 받아주고 있었다."

이런 사회상을 밑바탕으로 18세기 조선의 선비였던 박제가가 양국의 거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그 논지를 「진북학의」 '거름 5칙'으로 다음 요지와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똥을 황금처럼 아낀다. 길에는 버려진 재도 없다. 말이 지나가면 삼뽕기를 들고 그 뽕뽕을 따라가서 말뽕을 거두어들인다. ... 처음에는 그 꼴을 보면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웃었다. ... 그러나 그것은 다음해에 곡식과 같은 양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수수장이나 뽕짚을 함께 섞은 잡풀더미를 쌓아 부숙시켜 만든) 퇴비를 쌓아 놓는데 ... 거름 아래의 둘레에는 고랑을 파고 용기를 묻어서 새어나오는 거름물을 받아 모은다. (또 혹자는) ... 큰 오기에 그물과 누런 툇을 섞어 모으고 긴 막대기로 휘저어 덩어리가 멀건 죽처럼 되게 한다. 여름 대낮에 자루가 긴 바가지로 거름물을 떠서 모래사장

에 펴고 뒤집기를 한다. ... 이것을 부셔서 가루를 내고 채소밭의 거름으로 사용한다." "장자는 이른 바, '썩어 냄새나는 것이 새롭고 기이한 것으로 변신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똥은 그렇다치고 오줌은 아예 받을 그릇이 없다. ... 서울에서는 날마다 뜰 한 귀퉁이나 길거리에 그대로 쏟아 버린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우물이 모두 찌꺼기 마린이다." "1백 모(1모는 백평)의 농토를 경작하는 집에는 마땅히 소 두 마리를 길러야 한다. 소 두 마리가 있는 집에서는 반드시 물건을 신는 수레 한 채가 있어야 한다. 수레에는 반드시 짐을 신는 자리가 있어서 갯가의 버드나무를 엮어 만든 큰 광주리에 안쪽을 종이로 바르고 기름칠과 회칠을 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한다. 여기에 오줌을 채워서 신는다. 중국에서는 기름이나 술을 신는 도구도 모두 이런 그릇이다." "무논에서는 떡갈나무 잎을 생으로 따다가 덮은 경우도 있다. ... 오래 된 방법으로는 녹두를 심어서 잎사귀가 무성할 때 갈

아 없으면 분노보다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해묵은 도랑의 썩어 감겨 변한 흙은 모두 분노처럼 쓸 수가 있다."

시사점 박제가의 이들 원칙론은 우리나라에서도 단편적으로, 또는 다른 대륙과 더불어 제시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다. 그러나 선견을 오로지 제시되었던 비배관리 기술들은 대체로 「산림경제」 등속의 농서에 기술되고 있었을 뿐으로 결코 농사현장에서 실용화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박제가의 지론은 새삼스러운 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똥·오줌에 대한 고루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응용수의 오염을 막고 환경을 정화한다는 차원, 그리고 수레를 끌어서 오줌을 농사용으로 쉽게 옮겨 쓸 수 있다는 유류농업의 농기구조를 염두에 두었던 점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높게 평가하여 수용할 가치가 있다. 출처 농촌진흥청 <은고이지신>

# 흙과 비료 무기태 질소 공급 시비법 필요

2010년부터 저농약 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되면서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급격히 줄었다. 그 결과 저농약인증면적이 2009년 117,306ha(정보)에서 2012년에는 37,165ha(정보)로 8만 정도가 감소되었다. 같은 기간에 무농약인증 면적은 71,039ha에서 101,657ha로 3만 정도가 증가하고, 유기는 1만 2천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4만 정도가 줄어들었다. 일부에서는 친환경인증에 가장 어려운 점이 제조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저농약 인증에서도 제조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습하고 덥기 때문에 병충해가 많아서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는 작물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모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무농약농산물이 10만 정도가 되는 동안 유기농산물 면적은 무농약농산물 면적의 4분의 1인 2만 5천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유기농산물 재배에 있어 농약보다 비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무농약농산물 재배에 있어 화학비료 사용량은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그런데, 관행농가의 시비량은 권장시비량을 1.5배에 달한다. 화학비료를 권장시비량의 3분의 1 시비하는 양은 관행농가 시비량의 5분의 1만 시비하는 양이다. 이렇게 적은 양의 화학비료를 시비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화학비료의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무농약재배 농업인이 화학비료를 권장시비량의 3분의 1 이하 사용하는지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수 및 면적 추이

구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기
	면적(ha)	296	8,559	9,270	12,033	13,343	15,517	19,312	25,467
무농약	농가수(호)	1,060	21,656	31,540	45,089	63,653	83,136	89,765	90,325
	면적(ha)	876	18,066	27,288	42,938	71,039	94,533	95,253	101,657
저농약	농가수(호)	1,035	50,812	92,413	119,004	125,835	89,992	57,487	36,025
	면적(ha)	867	48,371	85,865	119,136	117,306	83,956	58,109	37,165
합계	농가수(호)	2,448	79,635	131,460	172,553	198,891	183,918	160,628	143,083
	면적(ha)	2,039	74,995	122,882	174,107	201,688	194,006	172,674	164,289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무농약재배 농업인 중에는 화학비료를 규정이상 시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규정대로 화학비료를 시비한다면 이것은 구아노, 생선액비, 혈분 등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속효성 유기 질소비료 뿐 아니라, 퇴비차 등으로 어렵지 않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실례에서 유박에 들어 있는 질소는 여름 날씨가 들이오면 30~40%가 무기화되고, 4개월이면 70%가 무기화된다. 겨울과 여름은 90% 이상 무기화

된다. 유기질비료로 재배하는 것이 무기질비료로 재배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게 나온 보고서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화학비료가 속효성인 것은 사실이나 화학비료 중에도 유기질비료보다 더 오랫동안 서서히 용출되는 소위 완효성비료도 많다. 관행재배 농가에서는 속효성질소비료보다 2배 이상 비싼 완효성 비료를 시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속효성 유기질비료에 해당하는 계분, 어분, 구아노와 완효성 질소에 해당하는 유박,

군배양재, 퇴비 등의 적절한 조합으로 원하는 시기에 화학비료와 같은 형태의 무기태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비법을 보급한다면 화학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농약재배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2014년 현장농민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로 유기농업에 있어 작물별로 이상적인 시기별 무기태 질소 발현 패턴과 이에 적합한 시비법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자문해 본다. 글 최관호 흙살림 연구위원장

## 흙의 성질 흙속의 질소화합물

흙은 암석의 풍화물인 광물성분의 돌, 자갈, 모래, 미사, 점토와 생물유체인 유기물로 구성한다. 보통 흙에는 유기물이 5% 정도 들어있고 자연생태계는 광물과 유기체에서 필수영양소를 공급 받아 생명을 지속한다. 광물구성분에는 식물의 다량필수영양분인 질소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기물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어 그 기능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흙은 오랜 세월 생물이 생존하는 공간으로 4차원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 구성비도 광물(固相, 45%), 공기(氣相, 25%)와 물(液相, 25%)과 같이 부피로 표시하여 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편리하도록 하였다. 질소는 3대 영양소인 단백질의 핵심원소이고 식물이 가장 많이 흡수하는 3대 원소의 첫 번째로

대기중의 78%를 점유한다. 질소가스(N<sub>2</sub>)는 생명체에 해가 없는 불활성가스로 흙속의 미생물(azotobacter, rhizobium 등)이 고정하거나 공중에서 방전으로 산화돼 산성비의 성분으로 흙에 함유된다. 흙속의 질소화합물은 유기태(有機物)가 근간인 암모늄태질소(NH<sub>4</sub>)로 전환되는데 이를 암모니아화작용이라 한다. NH<sub>4</sub>가 산화반응으로 아질산(NO<sub>2</sub>)을 거쳐 질산태질소(NO<sub>3</sub>)로 변환되는 과정을 질산화작용이라 하며 유기태의 무기화의 핵심내용이다. NH<sub>4</sub>는 흙용액에서는 암모니아수(NH<sub>4</sub>OH)형태로 존재하다가 흙의 산도(pH)가 높은 경우 옥소는 냄새를 내뿜는 암모니아가스(NH<sub>3</sub>)로 휘산한다. NH<sub>4</sub>에

서 NO<sub>3</sub>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NO<sub>2</sub>가 아질산균에 의해 생성되고 무기화의 중착인 질산태질소가 질산균의 작용으로 생성된다. NH<sub>4</sub><sup>+</sup>는 음이온으로 대전한 광물입자(固相)에 흡착되었다가 흙용액(液相)으로 용출되고 식물이 필요한 양을 흡수하면 나머지는 광물에 다시 흡착 보존된다. NO<sub>3</sub><sup>-</sup> 음이온은 같은 음이온전하를 지닌 광물입자의 반발로 흡착하지 못한 채 흙용액에서 떠돌다가 식물에 흡수 이용되지 못한 나머지는 유실되어 지하수로 유입 된다. NO<sub>3</sub><sup>-</sup> 이온은 통기성이 불량한 흙에서는 환원작용으로 아질산(NO<sub>2</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일산화질소(NO)가스 등으로 전환되어 공기(氣相)에서 탈질작용으로 대기권에 합류한다. 탈



소의 축적으로 산도가 낮아지면 NO<sub>2</sub>가스가 발생한다. 대기질소(N<sub>2</sub>)를 고정하여 유기태질소를 만들고 식물의 양분이 되기 위해 무기화작용으로 생산된 암모늄태질소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근본 영양소이나 과도한 축적은 생명체에 해를 주게 되고 이로부터 질산태질소로의 전환은 유익하기도 하나 과잉성분은 지하수로 쉽게 이동해 오염식물을 생산하고 이를 장기복용하면 치명적이다. NO<sub>3</sub><sup>-</sup> 이온은 소화장기에서 NO<sub>2</sub>-로 환원되며 아질산염은 발암물질로 경계대상이다. 비닐하우스에서 관리미숙으로 발생하는 NO<sub>2</sub>가스는 독성이 있는 전구물질인 NO의 산화반응으로 생성되고 독성이 있어 잎과 뿌리를 손상한다. 흙속의 질소화합물에서 분출되는 유해가스의 관리는 포장의 흙성질을 파악하고 흙검정에 의한 시비량을 준수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글 신제성 흙살림 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친환경농산물 1호 인증기관

## 한국농식품인증원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

한국농식품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와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간편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격리 1길 7 오창벤처프라자 303호  
 전화 043-212-0934 전수 070-8677-3320  
 홈페이지 www.kaafc.kr 이메일 admin@kaafc.kr

# 경칩 오기 전 고로쇠수액 먹기

## 고은정의 농식약동원

3월 6일은 동면을 하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리며 활동을 시작하는 절기인 경칩이다. 이 무렵부터는 동물 뿐 아니라 식물들은 새싹을 틔우고 온 세상의 생명체들이 스프링처럼 튀어 오른다. 인체도 자연의 일부이니 겨울동안 움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힘차게 일어나야 하지만 봄이 되면 이상하게 몸이 더 나른해지고 자꾸 아래로 처지게 되어 피곤함을 느끼게 되므로 봄에 만 오는 그런 인체의 현상을 우리는 특별히 춘곤증(春困症)이라 부른다.

이른 봄에 인체가 느끼는 피곤함을 이겨내는 음식들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긴긴 겨울동안 몸 안에 쌓여 있던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기지개를 켜게 하는 것으로 고로쇠 수액만한 것이 없다. 수많은 봄나물들이 있지만 하우스 재배가 아니고서야 경칩 무렵에 구경하기 어려우므로 고로쇠 수액이야말로 봄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맛있는 추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로쇠나무는 해발 500m~1,000m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단풍나무과의 활엽수다. 경칩 무렵의 이른 봄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데 이때 줄기와 가지가 수축을 하면서 땅속의 수분을 뿌리가 빨아들여 줄기로 올려 보낸다. 낮에 기온이 다시 영상이 되니 올라가면 줄기의 수액이 팽창해 밖으로 나가려는 특성을 활용해서 채취하는 것이 우리가 따시는 고로쇠나무의 수액이다. 2월에서 4월 초순까지 일교차가 가장 클 때 수액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경칩을 전후로 한 10일 간에 나오는 수액이 가장 양질의 수액으로 알려져 있다.

살아있는 나무가 필터가 되어 자체여과과정을 거쳐 나오는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고로쇠 수액을 일컬어 항간에는 '인류 최후의 음용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며 실제로 갈습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일반식수의 3~40배에 이른다고 한다. 국립 산림과학원 수액연구팀이 충북대 수의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쥐 실험을 통해 고로

쇠 수액은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을 유발시킨 생쥐에게 고로쇠 수액을 7주간 먹이고 골밀도 조사를 한 결과 혈중 칼슘농도가 20% 늘어났으며 뼈의 길이는 5%, 밀도는 15%, 두께는 50%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생쥐의 명역 세포는 2배 이상 늘어났고 면역 조절물질 분비가 최대 5배까지 증가하였다고 하니 신체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성장기 어린이의 뼈 발육이나 갱년기 이후 여성들의 골다공증, 혹은 신체 면역력이 저조한 사람들이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뼈에 좋다고 하여 골리수(骨利樹) 혹은 고로쇠로 불리는 고로쇠나무의 수액에 대해 <본초강목>에도 관절통이나 골절에 좋고 피부습진 등에 좋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고로쇠수액은 성질이 차므로 몸에 좋다고 하여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옳지 않다. 속이 찬 사람에게는 독이 될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자칫 속이 차가워져 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 고은정 약선식생활연구센터



고로쇠 수액

# 씹을 수록 고소한 맛 '봄동'

## 꾸러미로 만든 레시피

봄동은 노지에서 겨울을 이기고 이른 봄에 땅에 떨어진 듯 붙어 있는 배추이다. 송채라 하여 맛이 달고 성질은 시원하여 폐와 위를 열을 내려주고 수분 보충으로 갈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 변비, 열로 인한 기침, 주독, 위궤양, 소변불리증상에도 도움이 된다. 달고 사각거리며 씹히는 맛이 좋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있어 봄에 입맛을 돋우는 걸절이나 씹으로 먹으면 좋다.

■봄동마른새우두부국  
▲재료 : 봄동 150g, 마른새우 3큰술, 두부 반모, 고추장 2

큰술, 대파 반대, 다진마늘 1작은술, 국간장 1큰술, 다시마국물 5컵

●만드는 방법  
1. 봄동은 깨끗이 씻은 뒤 어슷 썰고 두부는 깍둑 썰고, 대파도 어슷 썬다  
2. 마른새우는 냄비에 볶다가 다시마국물을 붓고 고추장을 풀어 끓어오르면 봄동을 넣고 끓인다  
3. 두부, 다진 마늘, 대파를 넣고 한소끔 끓인 후 국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모듬쌈견과류샐러드  
▲재료: 모듬쌈채소300g, 방



김찬희 슬로푸드문화원 약선요리사

울토마토 6개  
▲드레싱: 견과류(호두, 아몬드, 땅콩, 호박씨등) 80g, 현미유 2큰술, 우유 50ml, 꿀1큰술, 유자청 1/2큰술, 소금1작은술

●만드는 방법  
1. 채소는 씻어 체에 건져 물기를

를 뺀 후 한입크기로 자른다.  
2. 방울토마토는 씻어 반으로 자른다  
3. 드레싱 재료를 믹서에 넣고 갈아 준다  
4. 접시에 채소를 담고 드레싱을 끼얹어 낸다.  
■호박가오리(말린 호박)나물  
▲재료 : 호박가오리 불린것 300g, 깨소금 1작은술, 다시마육수 1/2컵  
▲양념장: 집간장2큰술, 들기름 2큰술, 다진파1큰술, 다진마늘1/2큰술

●만드는 방법  
1. 말린 애호박은 찬물에 살짝 주물러 행군 후 미지근한 물에 부드럽게 불린 후 물기를 짜고 반으로 자른다.  
2. 양념을 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든 후 호박가오리에 버무린다.  
3. 팬을 달군 후 양념한 호박가

오리를 볶다가 육수를 붓고 뚜껑을 덮어 은근히 조린다  
4. 뚜껑을 열고 볶아 국물을 더 없앤 후 깨소금을 뿌려 낸다.  
■팽이버섯나물  
▲재료 : 팽이버섯 300g  
▲양념장 : 국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다진파 1큰술, 다진마늘 1/2큰술, 깨소금 약간

●만드는 방법  
1. 팽이버섯은 물에 불려 끓는 물에 삶아 그대로 식혔다가 찬물에 행구어 물기를 짰다  
2. 분량의 양념을 섞어 팽이버섯을 넣고 무친다  
3. 팬을 달군 후 양념한 팽이버섯을 주물러 행군 후 미지근한 물에 부드럽게 불린 후 물기를 짜고 반으로 자른다.  
4. 국물이 자작자작해 지면 뚜껑을 열고 국물이 없이 볶은 후 깨소금을 뿌린다.

홍살림신문 2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p>피마지박 수입 판매업체 <b>(주)대창화학</b> Tel. 02-715-0046</p>	<p>비료, 사료생산 사회적기업 <b>(사)일하는 사람들</b> Tel. 064-733-8223</p>	<p>백탄 제조 전문 <b>백운참숯</b> Tel. 043-651-5621</p>	<p>친환경,건강,기술을 추구하는 <b>청아테크농산</b> Tel. 031-763-6683</p>	<p>대용량 포매 전문업체 <b>스마트 포장상사</b> Tel. 043-854-3807</p>
---	---	---	--	--

# 배 터지는 것도 모르고 먹는 염소

## 흙살림 토종 농장 이야기 ②

■ 땅도 쉬어야 한다  
눈이 살포시 내려앉은 삼방리. 사방이 고요하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나 트랙터의 엔진 소리만이 적막감을 깨뜨린다. 간혹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귀음은 오히려 고요함을 지극하게 만든다. 땅이 쉬고 있다. 지난 봄 여름-가을 열심히 일해 준 땅이기에 차마 기집 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겠다. 땅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은 옛 어르신들 마찬가지였는가 보다.

「제민요술」의 발갈이 조에는 겨울철에 밭의 운용을 금하고 흙을 잠들어 쉬게 하라고 하였다. “초겨울이 되면... 하늘의 기운이 위로 오르고 땅의 기운이 내려앉아서 천지간의 기운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이른바 서로가 폐쇄하여 겨울을 이룬다. ... (지난) 농사일에 매였던 농부도 휴식하게 된다. 당장은 백성을 모아 음주를 하되 연령의 수순을 바르게 세우라 하였다. 한겨울에는... 땅의 쓰임새를 일으켜서는 안되고 덮어 갈 무리한 것을 열지 말아야 하며 밀봉한 실육의 틈바구니를 열어

젓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땅의 기운이 새어 나가지 않아야 한다. 이는 천지간의 실방을 열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겨울잠을 자는 별레들이 죽어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질병을 일으킨다.”

하지만 땅이 쉬다고 사람도 마냥 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올 한해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 작부 계획도 세워야 하고, 쉬고 있는 땅에 영양분(퇴비 등)도 공급해 줘야 한다. 지극한 보살핌이 있어야 그 보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땅이 주는 고요함이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로움이 깃들게 만든다. 심표 없는 긴 문장을 읽다보면 숨이 자듯, 심표 없는 삶도 숨이 차다. 땅이 쉬는 참에 농부도 잠깐 쉬어볼까 한다.

■ 과식하는 염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고들 한다. 아마도 이게 맞는 말이다. 야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에 한해서라면 말이다. 하지만 인간이 사육하는 동물들 중엔 과식하는 종이 꽤 있다. 특히



개구리나 곰만 겨울잠을 자는 것은 아니다. 흙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삼방리 농장도 굳게 잠들었다.

야생상태에서도 먹성이 엄청난 염소는 집에서 기를 땀 먹을거리를 잘 조절해 주어야 한다.

지난 주 농장에선 새끼 염소가 한 마리 죽었다. 도대체가 죽은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염소 고기를 취급하는 건강원에서 염소를 보더니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한다. 자주 들리지 못한 관계로 못 먹게 된 토마토를 한가득 우리 안에 넣어뒀더니 그만 사람이 되고 만 것이

다. 다른 염소는 그나마 먹는 양을 조절했지만 새끼는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계속 먹어댄 것이다.

원래 염소라는 종 자체가 먹성이 대단하다고 한다. 봄철에는 새순이나 새싹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겨울철에는 식물 뿌리와 나무껍질까지 갉아먹는다. 그러다보니 염소가 무리를 지어 있는 곳은 사막화가 이루어질 정도다. 한때 염소로 인해

무인도의 환경파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맹독성 식물인 투구꽃 등만 빼고는 모든 식물의 낙엽까지 먹어대는 바람에 섬이 황폐화 된 것이다.

이런 염소에게 먹이를 잔뜩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배부를 때 손가락을 놓는 법을 알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새끼 염소가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 종자 자급 농가를 찾습니다



농업과 품종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획일화 되지 않는 식품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종자의 자급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자자급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농가내 종자 자급'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농부가 '농사지을 권리'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농민 스스로 종자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외부로부터 쉽게 권리를 빼앗기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또한 농가 내 종자 자급의 토대가 있어야 농가 간의 종자교환도 가능해지고 다시 지역 내 종자 자급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이런 종자 자급의 한 축은 토종 종자일 것입니다. 5천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남은 저력이 있기에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급 종자의 길이 꼭 토종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농가 내에서 선발하거나 육성한 품종과 외국에서 도입되어 국내에서 적용한 품종 및 새롭게 개발된 품종이라도 종자의 자급율을 높여나갈 수 있다면 농업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흥살림 신문이 200호를 맞이하여 '자급종자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종자를 직접 자급하고 있는 농가나 그런 농민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흥살림연구소에 연락을 주세요. 흥살림 신문을 통해 자급종자가 왜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락처 : (사)흥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 유기농 도시농업용 신제품

## 텃밭자재



**상자텃밭용 유기배양토 작은텃밭 18L**

유용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을 등으로 배합, 발효되어 가볍고 영양 가득 작물재배에 알맞습니다.

**상자 텃밭용 발효 퇴비 원예용 흙나라 1kg**

유기농 원료로 부숙, 발효된 유기질 퇴비. 작물이 심어진 화분에 한 주먹씩 공급하면 충분합니다.

**그로우백 17~21L**

임채소용과 열매채소용 두가지로, 손잡이와 물빠짐 구멍이 있어 실내 텃밭으로 안성맞춤!

**텃밭용 종합관리세트 텃밭사남매**

병이 생겼을 때 - 임살림S 작물을 튼튼하게 - 임나라 작물에 생기를! - 비터엑스 별레가 생겼을 때 - 진달래그린

**텃밭용 부숙 발효 퇴비 흥살림 균배양체 그린 10kg**

작물에 천연양분, 미생물, 발효유기물을 동시에 공급! 작물 심기 10일 전에 살포하고 발을 만들어 줍니다. 5평 텃밭에 1~2포 정도 사용하면 돼요.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점처 동협 323-01-063992 | 예금주 (주)흥살림

이달의 흙살림 자재

# 흙살림 잘잡아(모판처리용)



1. 등록사항  
- 유기농업자재 총해관리용 : 2014년 2월 말 등재
2. 원료 : 천연 식물추출물, 제오라이트볼
3. 사용량  
1) 이양 당일 육묘상 처리  
2) 모판 1상자 당 50g 처리 (총 40판 사용)

■ 특징

- 1) 강력한 살충력을 지닌 식물추출물(양명아주, 멸구슬나무, 회화나무, 계피나무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벼 생육 초기 가장 문제되는 해충인 벼물바구미는 물론 우렁이를 가해하는 참새벌레에도 효과적입니다.
- 3) 입상 형태의 제제로 살충성분인 식물추출물이 처리 후 서서히 용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이며, 강력한 살충효과를 나타냅니다.
- 4) 식물성 오일이 주성분이 타 제품에 비해 약해 발생 정도가 낮습니다.
- 5) 이양 당일 모판 처리로 사용이 간편합니다.
- 6) 성충 발생 시 수도박사를 사용하면 높은 방제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7) 높은 양이온치환용량(CEC)을 가지고 있는 제오라이트가 원료로 사용되어 토양개량에도 효과적입니다.
- 8) 여러 항목(합성농약 함유여부, 유해성분 함량 등)에 대한 자사 안전성분석센터의 주기적인 분석으로 안전성이 매우 높은 자재입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

- 1) 단독 사용을 권장합니다.
- 2)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햇빛을 피하고 서늘



‘흙살림 잘잡아’ 처리전 해충 사진

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3) 약제가 앞에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하십시오.

■ 효과

- 2013년 5월에서 6월까지 자사 실험실 및 포장에서 물바구미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처리량-모판 1상자 당 50g)

구분	모 피해율(약제 처리 5일 후)	모 피해율(약제 처리 10일 후)
무처리구	48%	73%
처리구	12%	15%

- 2) 결과  
가. 시험약제 잘잡아의 약효시험 결과 약제를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구의 경우 1차 조사(처리 5일 후)에서 48%, 2차 조사(처리 10일 후)에서 73%의 모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잘잡아를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1차 조사에서 12%, 2차 조사에서 15%의 모에서 피해 증상이 나타나 무처리구 대비 피해율이 상당히 낮았다.  
다. 물바구미와 참새벌레 두 종 모두 발생하는 포장에서는 잘잡아를 모판처리한 후 추가로 참새벌레 밀도가 급증하는 시기에 잘잡아를 살포하면 두 종의 해충에 대한 높은 방제율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흙살림 신문 광고 받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유기농자재는 물론 농산물, 농업관련정책 등 농업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를 흙살림 신문을 통해 전달하세요. 흙살림 신문은 흙살림 회원과

생산농가, 농업관련단체, 꾸러미 회원들은 물론 도시농부와 소비자들까지 모두 읽는 소식지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정확히 전달해 줌으로써 목적하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유기농업의 '믿을 가는 동반자' 흙살림과 함께 하세요. 흙살림 신문 광고 문의 : (사) 흙살림 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친환경 농업 인증

### 신청가능 여부 자가 진단하기

2013년 6월 2일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인증기준으로 인해 인증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표 문항은 인증기준의 개략적인 항목에 국한한 것으로 실제 인증심사는 보다 상세한 심사를 하게 됨을 참고하시고, 부적합 항목이 없을 경우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진단내용	적부진단	
		적합 항목	부적합 항목
경영관리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산물 재배포장에 관한 경영관련자료(영농일지 등)를 1년 이상 기록, 보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기록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록 없음
	영농관련 자료에는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한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기록(자재명, 사용일자, 사용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기록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록 없음
	영농관련 자료에는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기록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록 없음
재배포장	재배포장 토양 인근에 폐금속광산, 폐기물 매립지 등 토양오염원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오염원 없음	<input type="checkbox"/> 오염원 있음
	파종 전(또는 식재 전)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한 이화학적 성분검정(토양시비처방전)을 실시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검정 실시	<input type="checkbox"/> 검정 미실시
	재배포장이 공동방제를 실시하거나 농약을 살포하는 관행재배 필지와 인접하여 있습니까?(인접한 경우 비산방지 계획이 있는 경우 적합)	<input type="checkbox"/> 인접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인접함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무농약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포장입니까?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관리	<input type="checkbox"/> 관행 관리
종자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이력 없음	<input type="checkbox"/> 이력 있음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유전자 변형 종자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유전자 변형 종자 사용
모종	육묘과정(상토 등)이 무농약 인증기준에 적합한 모종을 사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적합한 모종 사용	<input type="checkbox"/> 일반모종 사용
용수	용수기준(농업용수 기준 또는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기준 적합	<input type="checkbox"/> 기준 부적합
재배방법	최근 1년간 작물 재배과정에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농약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농약 사용
	최근 1년간 작물 재배과정에서 화학비료는 토양시비처방전의 1/3 이하를 사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3 이하 사용	<input type="checkbox"/> 1/3 초과 사용
	최근 1년간 재배포장에 제초제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제초제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제초제 사용
생산물의 품질관리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함께 저장, 수송 하고 있습니까?(함께 수송할 경우, 구분관리 계획이 있는 경우 적합)	<input type="checkbox"/> 별도 수송	<input type="checkbox"/> 공동 수송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합니까?	<input type="checkbox"/> 방사선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방사선 사용
과거 이력	최근 1년 이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최근 1년 이내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여주 자영 농고와 MOU 체결

지난 2월 13일 충청북도 청원군에 위치한 흙살림 오창사무소에서 (사)흙살림연구소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간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두 단체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 발전과 후계 농업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에 관한 특강 및 실습 지원, WPL 교육장 운영, 영농 희망 학생들을 위한 멘토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 ■ 2월 흙살림 주요 일정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4일	괴산	교육	36	괴산유기농업리더양성교육
13일	오창	협약		여주자영농고와 MOU 체결
17일	괴산	방문	4	몽고 유기농 관계자 견학
18일	괴산	교육	20	괴산유기농업리더양성교육
24일	광주	강의	40	전남친환경골프장 워크숍 강의
24일	오창	감사		(사)흙살림연구소 감사
26일	괴산	교육	30	영월군 유기자재 교육
27일	청원	회의	30	(사)흙살림연구소 이사회 및 총회

## ■ 알림

흙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우리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 흙살림연구소 현장실습교육생 모집

## ■ 교육소개

### ○ 현장실습교육(WPL)이란?

- 선도농업인의 기술과 현장 노하우를 현장 실습 교육 습득으로 경쟁력 제고
-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영농기술 습득으로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시킴

### ■ 흙살림연구소 현장실습교육장 정보

- 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
- 유형 및 품목 : 전국대표실습장 / 수도작, 시설채소류
- 실습농장현황 :



구분	규모	수량	비고
해당품목 실습장	5,000㎡	13개동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재배, 육묘장
	2,826㎡	1필지	-수도작 실습 재배지
이론 교육장	60명	1실	-강의실, 회의실
숙소, 식당	15명	2실, 1실	-지체, 외부 시설

## ■ 교육과정 소개

### ○ 교육 과정 및 모집 시기

구분	대상	모집기간	교육실시	내용	교육비(1인)
유기자재 만들기	귀농인	2월~11월	2월~11월	-균배양재, 완숙 퇴비 만들기	44,715원
	농업인			-액비 만들기	
친환경수도작 재배	귀농인	1월~3월	4월~7월	-수도작 재배 실습	375,760원
		6월~8월	8월~10월		
친환경 시설채소 재배	귀농인	1월~3월	4월~5월	-시설채소 재배 실습	688,380원

## ■ 교육문의 상담

- 세부 교육 일정과 내용은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교육문의 : 전화)043-833-5004, 팩스)043-833-5007, 이메일)nedjem@heuksalim.com
- 은행 및 계좌번호 : 301-0142-0798-61 / 농협 -입금처 :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 ■ 흙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영민, 곽은득, 곽대성, 곽호석, 구현수, 권득산, 권사훈, 권영삼, 김갑태, 김경인, 김계향, 김광남, 김광부, 김남영, 김남운, 김동수, 김동연, 김동진, 김명실, 김병수, 김봉균, 김상수, 김생수, 김시현, 김신유, 김연철, 김영철, 김원섭, 김윤목, 김이진, 김인훈, 김정곤, 김정순, 김준호, 김창호, 김창환, 김홍희, 김형숙, 김현주, 나기창, 남기운, 노상현, 도봉순속마을, 도명수, 라병현, 라양채, 류훈희, 문상기, 민병용, 민성기, 민인기, 박규건, 박기선, 박기환, 박동윤, 박래훈,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병혁, 박상일(서울), 박상일(해남), 박성남, 박승희, 박영숙, 박영범, 박의준, 박익순, 박정국, 박정목, 박종삼, 박종수, 박종화, 박준순, 박재동, 박재환, 박효은, 반명수, 방미진, 배은아, 백미숙, 백운남, 서성내, 서순악, 서현주, 석종욱, 성경숙, 성기남, 성수정, 송기봉, 송동흙, 송중훈, 송재중, 송지은, 신동규, 신문수, 신언관, 신치영, 신흥기, 심민보, 심주연, 안정택, 양병근, 엄창근, 여호기, 오과칠, 오두연, 오지은, 유승찬, 유우현, 윤국현, 윤미경, 윤성희, 이강욱, 이계수, 이규식, 이기중, 이도훈, 이명환, 이미선, 이민채, 이병두, 이삿별, 이석천, 이성원, 이순연, 이승훈, 이양희, 이원호, 이유정, 이은미, 이인경, 이일웅, 이재웅, 이재형, 이재희, 이장필, 이정호, 이종국, 이준규, 이진태, 이태근, 이필규, 이항순, 이호연, 임승익, 임원택, 장동철, 장명수, 장명순, 장정수, 전광석, 전희수, 정광영, 정구홍, 정규원, 정기인, 정기환, 정명순, 정석조, 정인숙, 정창환, 조기진, 조복남, 조정신, 조종기, 조진환, 조희주, 주영직, 주윤식, 차중수, 천호균, 최관호, 최광욱, 최금규, 최서연, 최연숙, 최유라, 최인철, 최춘식, 편용길, 하재우, 하정식, 한인성, 한혜수, 함선녀, 함종식, 허병문, 허상오, 허정영, 허현욱, 홍덕표, 홍승면, 홍정욱, 홍중윤, 황정연, 황정희.

**원예용 싹나라 50L**

친환경 유기재배용 원예범용 상토  
친환경유기농업자재 등록

안전한 친환경 원예 육묘  
뛰어난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  
각종 천연 영양 성분 함유

지금 미리 신청해 주세요!

**수도용 싹나라 20L**

친환경 유기재배용 수도 상토  
친환경유기농업자재 등록

국내 최초 유기농업용 수도상토  
다루기 쉬운 준경량 상토  
탁월한 통기성 및 보수력  
포 담 모판 8장 채움 (아린 묘 기준)

지금 미리 신청하세요!

흙살림 상토~ 지금 미리 신청하세요! 구입 및 공급 문의 080-333-8179